

석사학위논문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문학교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 현승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고 희 주

2003년 8월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문학교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현 승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고 희 주

고희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문초록>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문학교과를 중심으로 -

고 회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 승 환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21세기적 삶의 양식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과거와 격절된 삶이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현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교육 제재 중 하나가 바로 설화이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사회적 상황 속에서, 제주인들은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제주만의 독특한 삶의 양식을 형성하였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제주설화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설화의 교육을 통해 수천 년 축적된 제주인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게 함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 살아 나가야 할 방식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바르고 효율적인 사고, 독창적인 사고 형성에 제주설화가 얼마만큼 역량 있는 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설화에는 제주인의 생활상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설화 학

습은 설화교육의 모든 의의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독특한 삶의 지혜를 계승·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며, 제주의 향토사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설화 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습자의 개별적 학습 능력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며, 특성화·개별화 교육에도 잘 부합된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제주설화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둘째, 제6,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설화 수용 양상을 조사하여 현실화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해본 결과, 신화, 전설, 민담의 고른 배치가 제대로 고려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몇 가지의 제재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 영역 또한 문학교과서에만 치우치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제주설화의 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제주설화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학습모형을 구안하였다.

제주설화는 양식적 특이성과 자연환경, 역사·사회적 상황의 특이성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이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설화를 활용한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수준별 교수·학습모형과 설화지도 모형을 근거하여 새로운 제주설화의 수준별 교수·학습모형을 구안하였다.

넷째, 제주설화를 국어과 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읽은 내용 토론하기, 구연, 미완성 이야기 완성하기, 제주설화 문학 답사, 감상문 쓰기, 논술문 쓰기, 연극하기, 설화의 모티프를 이용한 수업 등 제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부합한 학습지도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선행 연구의 고찰	2
제3절 연구 방법	6
제2장 제주설화의 성격과 교육적 의의	8
제1절 설화의 성격과 기능	8
제2절 제주설화의 성격과 교육적 의의	10
제3절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의 목표	13
제3장 고등학교 교과서의 설화 수용 양상 분석	16
제4장 제주설화를 이용한 학습자료 개발	20
제1절 제주설화 내용체계	22
제2절 제주설화를 이용한 학습모형	29
제5장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33
제1절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	34
제2절 제주설화 교육의 방법	43
1. 읽은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기	45
2. 구연을 통한 지도	47
3. 미완성 이야기 완성시키기	49
4. 제주설화 문학 답사	51
제6장 결 론	54
참 고 문 헌	58
<Abstract>	62

표 차례

<표 1> 신화·전설·민담의 구분	9
<표 2>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문학 과목 목표 비교	14
<표 3> 교과서별 설화문학 제재의 수록 양상(제6차)	17
<표 4> 문학교과서에 실린 설화 제재의 분류(제6차)	18
<표 5> 문학교과서별 설화문학 제재의 수록 양상(제7차)	19
<표 6>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 교육목표	21
<표 7> 현재 전승되는 천지창조설화	24
<표 8> 수준별 학습지도안 - 수업 개관(예시)	36
<표 9> 수준별 학습지도안 - 세안(예시)	37
<표 10> 문학교과서 수록 설화와 관련된 제주설화(예시)	44
<표 11> 읽은 내용 토론하기 지도안(예시)	46
<표 12> 구연을 통한 지도 지도안(예시)	48
<표 13> 미완성 이야기 완성시키기 지도안(예시)	50

그림차례

<그림 1> 공통 필수과목과 과정별 필수과목, 선택과목과의 관계	16
<그림 2> 교수·학습 지도 연구 모형	3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21세기적 삶의 양식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 연속성은 단절될 수 없으며 적어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의 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변화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즉, 어느 시대나 과거와 격절된 삶이란 존재할 수 없는²⁾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교육 체제 중 하나가 바로 설화이다. 왜냐하면 설화는 특정한 어느 한 시대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고려, 조선조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설화는 현대문학 작품들과는 다르다. 이에는 민족의 사상, 역사, 철학 등이 담겨 있다. 한 민족의 철학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에 자연 환경과 충돌하고, 극복하면서 이루어 온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삶의 철학은 문자가 없는 시기에는 설화처럼 구전으로 전승될 수밖에 없다.

설화는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문자 기술 이전의 구비문학³⁾이다. 그 속에는 민중의 사상·감정·풍습 및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으며, 꿈과 낭만, 웃음과 재치 또는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이 담겨 있다.⁴⁾ 이러한 설화는 민중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오면서 민족적 정서 함양과 가치관 및 인생관이나 세계관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이 같은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화를 이용한 교육은 기존 교과간의 엄격한 울타리를 벗어나 각 교과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한 대로 가져다가 재구성하여 학생의 흥미 중심·문제 중

2) 윤치부, 「21세기와 제주 전통문화 교육」, 『초등교육연구』 제6집,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1(5), p.61.

3) 글이 없는 말은 있어도 말이 없는 글은 있을 수 없듯 구비문학은 기록문학보다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문학이다. 언어 예술은 시간 예술이라고 했는데, 순수한 의미의 시간 예술은 구비문학이다. 장덕순, 「한국설화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1, p.43.

4) 김기창, 「국어과 교육에서의 구비문학 제재수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p.15~16.

심·특성 제재 중심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설화를 단순히 학습의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활용함은 물론 설화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나 대립되는 견해도 학습 현장에 끌어들이 수 있다. 이는 어느 전문 분야만의 단절된 지식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종합되고 응용된 지식을 요구하는 중·고등학교 통합 교과 움직임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문학과목은 ‘문학 능력을 신장시키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을 즐기며 깨달음을 얻고,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과목으로서,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 문학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가치가 학습자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문학 능력을 세련시키는 것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화교육은 설화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설화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문학성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고, 우리의 전통 신앙과 도덕성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나 인물의 성격 등에 대한 문학적 고찰을 통해 과거성과 현재성이 혼재한 설화의 복합적 의미를 찾는 데에 기여한다. 이처럼 설화 문학의 교육은 고전 세계를 현대에도 도입시킨다는 결과가 되는 동시에 고전이 현대 문학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설화는 인간의 근원적 동질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 지역의 풍토성과 상황이나 주민들의 심리에 따라 유사 설화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제주도는 본토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적지 않다. 이러한 풍토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제주설화는 현재도 생명력을 지니고 구전되고 있으며, 문학적 상상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내용 또한 풍부하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바로고 효율적인 사고, 독창적인 사고 형성에 제주설화가 얼마만큼 역량 있는 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이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다.

제2절 선행 연구의 고찰

제주설화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성과

5) <http://nongae.gsnu.ac.kr>,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5호, 1997.

도 크게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설화를 수집하여 정리하거나 설화 속에 담긴 제주 선인들의 사상, 신앙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된 느낌이다. 또한 자료 수집을 거쳐 자료를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론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있다. 더구나 설화의 소설화 과정을 살핀다든지, 고소설의 근원설화를 탐구하면서 민간에 전승되는 설화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든지 하는 설화와 소설과의 관계 규명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판소리의 근원을 무가에서 찾는 무가기원설을 주장하여 학계에 공헌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 교육에 활용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드문 편이다. 일부에서는 설화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림, 연극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문학교육을 위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이를 활용한 발전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고 또 교육자료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설화를 교육적 제재로 삼기 시작한 것이 국정교과서에서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설화교육에 관한 관심도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⁶⁾ 그것도 유아교육에서 동화를 이용해 독서의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거나, 초등학교에서 동화를 이용해 권선징악의 도덕성을 가르치고 있는 게 고작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고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을 대상으로 설화의 소설화를 가르치고 있는 정도이며, 학습자를 고등학생으로 상정한 경우는 매우 드문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설화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주설화 연구 및 설화 교육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설화에 대한 연구로 현길언·김영화(1980)⁷⁾와 소재영(1985)⁸⁾은 인물 전설을 중심으로 설화에 나타난 제주인의 정신을 탐구하기 위해 제주도 설화를 당신과 설문대 할망, 고종달 설화, 아기 장수 설화, 오뎨 힘내기 설화, 장수 설화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제주 설화는 제주민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피해 의식과 배타 의식, 현실주의적인 생활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앞서 말했듯이 제주 설화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신화에서부터 자연전설,

6) 박미경, 「고등학교 설화 교육의 내용·조직·방향 연구 - 문학 교과서의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5.
7) 현길언·김영화, 「제주 설화를 통해 본 제주도 정신고구」, 『논문집』 제12호, 제주대학교, 1980.
8) 소재영, 「제주지역 설화 문학의 비교연구」, 『송실어문』 제11집, 송실대학교 송실어문연구회, 1985.

역사전설, 민담 등을 통해 제주 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삶의 양상을 분석하고 정체성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설화 속에 담긴 제주 선인들의 사상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연구물이 많았다.

다음으로 설화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처음으로 설화교육의 토대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최운식(1980)⁹⁾은 설화의 성격을 설화의 개념, 특징, 기원과 전파 구조, 형식, 내용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설화교육의 의의를 밝힌 다음 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양효진(1994)¹⁰⁾은 흑부리 할아버지 설화의 전승 양상과 설화의 구조 및 의미 파악을 통해 그 교육적 의미를 실제 교수·학습에 전개시켰다. 황길웅(1981)¹¹⁾은 설화의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교과서 수록 제재 분석, 중등 설화 교육의 비중을 이야기하였으나 「고교 국어 교재에 수록된 설화 연구 - 그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라는 논문 제목과는 달리 그 교육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현장 교육에 연결시키지 못한 면이 있다.

또 김기창(1991)¹²⁾과 정인관(1988)¹³⁾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설화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전자는 제5차 교육과정까지 초·중·고교 교과서 수록 구비문학 제재를 연계성 있게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구비문학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였지만 고등학교 문학 부분은 제외시켰다. 후자는 제4차 교육과정 초등 국어교과서 수용 설화 제재 분석과 교육적 의미 파악, 설화 제재 수용에 관한 이해, 바람직한 학습지도 방안 모색 등을 연구하였다.

류선옥(1996)¹⁴⁾은 설화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의 상상력, 창조력, 통찰력 등 사고 구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학습자료를 제5차 교육과정의 8종 문학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두 집단을 설정해 학습 결과 차이를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비교하였지만, 그 측정도구가 학습자가 답한 질문지에 한정되어 객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

9) 최운식, 「설화교육서설」, 『한국어교육』 창간호, 서울 : 한국국어과교육개발연구회, 1980.

10) 양효진, 「흑부리 할아버지 설화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1) 황길웅, 「고교 국어교재에 수록된 설화 연구 - 그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12) 김기창, 전개논문, 1991.

13) 정인관,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수용 제재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4) 류선옥, 「설화교육이 학습자의 사고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지고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미(1997)¹⁵⁾는 고등학교 제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 걸쳐 통시적으로 설화문학의 교과서 수록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화교육의 기초 이론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화교육의 성격, 설화교육의 범위를 살펴보고 교육적 의의를 밝힌 다음, 설화의 교육목표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설화교육의 이론적 확립과 함께 교육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설화 교육에 대한 연구로서 손동인(1984)¹⁶⁾과 최운식·김기창(1988)¹⁷⁾은 전래동화를 이용한 교육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자는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고 동화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후자는 전래동화의 성격과 특성, 전래동화 교육의 목적, 구연, 읽기, 교수·학습에 의한 지도로 나누어 이론과 방법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자료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받을 수 있었다.

첫째, 교과서 분석, 설화 분석이 대부분 초등교육 논의에 치중하여 중·고등학교 설화 교육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설화 교육을 도덕성, 교훈성, 애국심 함양에 고정시킴으로써 설화의 교육적 기능만 강조하여 설화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화에 내재된 사상·철학적 측면, 이념적 논쟁 등 여러 분야의 종합적 지식을 요구하는 현 교육 현실에 맞도록 새로운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제주설화가 갖는 문학으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에 내재된 조상들의 삶의 지혜에 자연스럽게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이용해 학습시기에 맞게 재구성하여, 작품 속에 존재하는 인간과 세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계발시키는 설화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필요성을 바탕으로 그 동안 소외되었던 고등학교 설화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5) 김미, 「설화교육론 - 고등학교 설화교육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6) 손동인, 『한국전래동화』, 정음문화사, 1984.

17) 최운식·김기창, 『전래동화 교육론』, 집문당, 1988.

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한정,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을 밝혀둔다.

첫째, 이 연구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교육(公敎育)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교과서의 교육 내용은 현 교과서를 모두 다루기보다는 설화문학 제재의 빈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살피되, 설화문학 교육 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몇 가지 제재에 한정하고자 한다.

셋째, 고등학교 설화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에서 교육현장의 실태 조사가 제외되었다. 이 방법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 결과는 설화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미흡한 상황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3절 연구 방법

설화문학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교육과정 및 각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실행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 설화문학 교육의 현장 실태를 조사 연구하는 방법, 그리고 설화문학 교육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공동필수 과정인 국어교과서에는 거의 실리지 않고, 문학교과서에만 다루어지고 있는, 그 동안 소외되었던 고등학교에서의 설화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과 함께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특히 제주의 지역적 특성상 나타나는 제주설화의 특징을 분석하여, 문화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주설화를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제 I 장에서는 왜 설화가 문학교육에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근거를 밝힌다. 동시에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고등학교 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제주설화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밝힌다.

제 II 장에서는 제주설화의 성격과 교육적 의의에 대한 내용으로 설화의 성격과 기능,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관련된 제주설화의 성격과 교육적 의의에 대해 알아본다.

제Ⅲ장에서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설화 수용 양상을 파악하여 현 설화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먼저 제주설화의 내용 체계를 살펴본 후, 이를 이용한 ‘설화의 교수·학습 모형’을 작성하여 설화교육 방법을 모색하며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제Ⅴ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준별 학습과정에 부합하는 제주설화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이러한 모든 고찰들을 묶어 제Ⅵ장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제2장 제주설화의 성격과 교육적 의의

제1절 설화의 성격과 기능

설화¹⁸⁾는 일반 민중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이다. 이것은 신화·전설·민담의 세 가지로 분류하지만 뚜렷이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서로 넘나들기도 하고 상호 전환되기도 한다. 내용은 민족적이고 민중적이어서 그 시대의 교훈·도덕·사회제도 등 민족의 생활 감정과 풍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상적이고 공상적인 특징을 가진다. 또한 형식은 서사적이어서 소설의 모태가 되기도 하며 문자로 정착되어 기록문학적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설화는 기록된 것도 있으나 주로 화자(話者)와 청자(聽者) 사이에서 구전(口傳)되는 이야기로서 단순하고 간단한 표현 형식을 가지며, 서사민요·서사무가·판소리 등이 대개 율문(律文)으로 구연(口演)되는 데 비하여 설화는 산문(散文)으로 구연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설화 가운데 기록된 자료를 문헌설화라고 하며, 현재 구승(口承)되는 자료를 구전설화라고 한다. 한국의 고대설화가 문자로 정착된 것은 고려 때부터이다. 설화 자료는 단군신화(檀君神話)를 포함한 수많은 신화·전설이 수록되어 설화의 보고(寶庫)라 일컬을 만한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역사서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여러 지리서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필기(筆記)·잡록(雜錄) 등에도 설화가 실려 있다. 이것은 기록 과정을 거치면서 소설의 형태를 갖추어 소설작품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러한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신화는 신적 존재와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에선 우주의 생성과 종말에 관한 우주신화와 천지·일월·성신에 관한 천체신화 및 건국신화와 시조신화 등이 있다. 서술 방법에 따라 신의 상태·동작·성질 등을 설명하는 설명적 신화와 신의 기원·유래 등을 추설(推說)하는 추원적(推原的) 신화로 나눌 수 있다.

18) 앞으로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신화·전설·민담을 포괄하여 '설화'라 통칭한다.

전설은 자연적 사물 현상에 대해 유래를 설명해 주는 방식을 취하는 설화이다. 실제(實在)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그것이 생겨나게 된 유래에 대해서 전하는 설화로 이것에는 항상 증거가 있다.¹⁹⁾ 이것은 주체가 되는 사물에 따라 지명전설(地名傳說)·성명전설(姓名傳說) 등으로 분류되며, 그것을 증거할 암석·수목·산천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민담은 신화의 신성성과 위엄성 및 전설의 신빙성과 역사성이 희박하고, 흥미 위주로 전해지는 일종의 옛 이야기이다. 그것은 동물설화·본격설화·소화(笑話) 등으로 분류되고, 또 본격설화와 파생설화(派生說話)로 구분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설화의 특징에 따른 하위 구분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화·전설·민담의 구분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신성하다’고 믿음. 신성성	‘진실하다’고 믿음 진실성	‘흥미롭다’고 믿음 허구성
시간과 장소	까마득한 옛날(태초) 신성한 장소	구체적이고 제한된 시간과 장소(조선조 숙종대왕 시절 에 서울 남산골에 ...)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 음(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어느 산골에...)
증거물	포괄적 (우주, 국가 등)	개별적, 구체적, 특별한 것. (바위, 동굴, 연못, 나무 등)	보편적 대상과 현상(수수 대가 빨간 이유...)
주인공과 그 행위	신(神), 초능력 발휘	비범한 인간, 비극적 결말	평범한 인간, 운명 개척
전승범위	민족적 범위	지역적 범위	세계적 범위

※ 출처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pp.17~20.(연구자 재구성)

이러한 설화는 인간 생활의 모범적 모델을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풍속을 고정시키고 의미 있는 인간 활동을 위한 행위의 모범을 설정하고, 어떤 제도에 위협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규범적인 힘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고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여 사회를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한때 설화는 웃음거리나 신과적인 이야기로 취급되어 기록문학의 보조 수단쯤으로 소홀히 다루었으나 오늘날에는 설화가 그 자체로서 문학성을 가지고 있고 소설이나 여타

19)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pp.17~20.

기록문학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설화 자체의 연구와 더불어 문학의 원천 및 문학사의 원류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설화는 과거에 의하여 현재를 설명하고, 현재에 의하여 미래를 설명하여 어느 개인이나 집단은 단절된 시기에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길게 연결된 하나의 고리라는 연대 의식과 유대감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어떤 질서가 영구히 계속됨을 확인하는 것이다.²⁰⁾

이런 의미에서 설화는 그 수용자들에게 시간을 뛰어 넘어 오늘의 우리를 조상들의 정감과 결속시켜 선인들의 생활 속에서 얻는 지혜와 교훈,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용기, 신념 등 윤리적인 교훈은 물론,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타인들과도 생활과 감정 면에서 결속시키며, 잃어버린 자연과 신과 모든 대상과 생활공동체로써 엮히게 하며, 동일성을 회복시키고 소외를 극복하게 해 준다.

인간은 현재와 미래를 지혜롭게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거가 필요하고 과거가 무(無)인 상태에서 지혜는 획득될 수 없다. 이 지혜의 획득을 위해 설화는 아주 유용한 학습 제재가 되는 것이다.

제2절 제주설화의 성격과 교육적 의의

현재 우리의 교육은 강제성을 띠어 의무감 속에 짓눌리게 하는 면이 있는데 비해 문학은 독자 스스로가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정신적 변화를 주고 있음을 볼 때 문학의 교육성은 높이가 평가되며²¹⁾, 그 기능은 독자에게 보다 고차적이며,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고 동시에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교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²²⁾

이와 같은 문학의 특성은 그 영역의 일부인 설화문학에도 포함되어 있어 위에서 언급한 문학의 교육성을 모두 내포한다. 설화 문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지중에 윤리와 생활의 지혜를 습득하게 한다. 민중들에 의해 향유되면서 부지중에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

20) 왕빈, 『신화학 입문』, 금란출판사, 1980, p.44.

21) 정동화 외, 『국어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1984, pp.30~33.

22) 구인환,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pp.42~47.

므로 문학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 실생활 속에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화문학은 특히 오늘날의 교육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화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하여 체험의 확대, 정서 순화, 상상력, 통찰력, 심미성, 창조성, 도덕성이 함양된다. 설화는 민중의 체험을 토대로 공동 창작된 것이므로 독자는 이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민중들의 다양한 경험을 접하여 삶의 영역이 넓어지며, 자아와 세계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고, 자기 중심적인 편파적인 사고와 편중된 자세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설화 문학 그 자체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물론, 설화는 역사성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므로 이의 교육을 통해 사회와 인간의 가치 및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 정신을 길러줌으로써 창조력을 배양할 수 있다.

둘째, 설화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한다. 바람직한 인간 형성은 지적·정서적·의지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된다는 뜻이다. 설화 학습을 통해 새롭게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력 배양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진실한 관계의 일깨움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지적이며 올바른 인간의 육성에 기여한다. 그리하여 지·정·의를 고루 갖춘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간을 육성한다.

셋째, 설화문학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 의식을 고취하며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형성하여 모국어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길러준다. 뿐만 아니라, 민족 문학의 원천이 되어 외래 문화 속에서 민족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구실을 한다. 설화 문학에 나타난 현실 인식 태도나 비판정신은 우리의 민족 문화가 다른 나라에 예속되거나 흡수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설화 문학이 우리 문화의 본질적 모습을 찾게 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화문학 작품을 개별의 문학으로 인식하고, 이를 교육 제재로 활용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설화 문학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고차적인 즐거움과 더불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발견함으로써 삶의 진실한 태도를 터득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이 시대를 바람직하게 이끌어갈 인간을 길러내게 된다는 의의를 가진다.²³⁾

설화문학 중에서도 제주지역의 설화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는 민족 집단도 정치적 공동체도 아니지만 본토(本土)[육지(陸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역사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문화적 차이가 적지 않은 독자적 공동체로서 독특함을 갖고 있다. 이런 풍토성과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제주의 많은 설화들은 본토와 공통된 것을 가지면서도 제주 특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기엔 남달리 영위된 습속이나 신앙과 향토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주도민의 의식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²⁴⁾

이러한 제주설화의 성격을 앞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신화·전설·민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의 신화에는 문헌신화로 삼성신화, 구전신화로 본풀이라고 하는 무속신화가 있다. 삼성신화는 세 신인을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 순으로 기술한 고려사(高麗史) 계통과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순으로 기록한 영주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본풀이는 심방이 굿을 할 때 의례의 한 형식으로 노래하는 신의 내력담이다. 이러한 본풀이는 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을 지배하는 신들의 이야기로서 전도 공통의 것인 일반신본풀이, 마을수호신인 당신(堂神)의 내력담으로 마을마다 다른 당신본풀이, 한 집안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로서 각 집안마다 다른 조상신본풀이가 있다. 이들 신화들은 어느 것이나 주인공의 출생·성장·고행·결연 등 파란 많은 생활을 그려 나가고 끝에 가서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는 결말을 짓는다.²⁵⁾

제주의 전설은 자연전설·역사전설·신앙전설이 골고루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자연전설에는 산악·암석·연못에 대한 전설에 특이한 것이 많고, 역사전설에는 관원·이인(異人)·장사·여걸 등에 대한 전설에 특이한 것이 발견된다. 그 중에는 백 개의 골짜기에 한 골짜기가 모자라 범도 왕도 위대한 인물도 나지 않게 된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한, 고종달이가 지맥을 끊어버림으로써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외세에 대한 한, 날개가 달려 태어나거나 엄청난 힘을 지닌 장사로 태어났으면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허기져 죽는 인물의 한 등 원망의 한을 그려 놓은 것이 많아 제주 사람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²⁶⁾

23) 박미경(2000), 전계논문, p.11.

24) 김열규 외, 『민담학 개론』, 일조각, 1982, p.3.

25) 고대경, 『神들의 고향』, 도서출판 증명, 1997, p.43. ; 류달선, 「제주도 당신본풀이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25~27.

26) 진성기, 『제주도 전설』, 도서출판 백록, 1992, pp.125~132.

제주의 민담은 제주의 자연적 환경, 역사적 배경, 생활양식 등과 어우러져 탄생된 것들이므로 한본토의 것들과 비교할 때 변이형의 모습을 갖는다. 지금까지 채록된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효도한 손자, 암행어사, 지렁이 아들’ 등의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제주설화에는 제주인의 생활상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설화의 학습은 앞에서 밝힌 바 있는 설화교육의 모든 의의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독특한 삶의 지혜를 계승·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며, 제주의 향토사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설화 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특성화·개별화 교육에도 잘 부합된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제주설화를 학습자료로 이용하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통한 효과적 학습과 국어 교육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제3절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의 목표

교육과정의 의미 규정은 그 범위와 중점 사항, 준거,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교육부가 법률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과, 그에 따라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편성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로 밝히고 있다.²⁷⁾

또한 교육과정은 국어교육 관련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표현한 ‘전문’과 ‘언어사용기능’ 영역 관련 목표, ‘언어’ 영역 관련 목표, ‘문학’ 영역 관련 목표를 각각 한 항목씩 설정하여 제시하였다.²⁸⁾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 성취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인지적 교육 내용과 정의적 교육 내용이 있다고 보고, 국어 교육의 내용적 특성과 관련한 성취 수준을 국어과 교육의 목표로 설정·제시했다. 이는 인지적 교육 내용에는 지식과 기능 요인이, 정의적 교육 내용에는 태도(동기, 흥미, 습관, 가치) 요인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27)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Ⅰ)』, 1992, p.5.

28) http://hsed.or.kr/home_2002/ 전라남도화순교육청.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학습을 포괄하여 ‘전문’으로 제시하고, 국어과 교육목표는 ‘전문’과 ‘하위 목표’를 제시한 제6차 교육과정의 목표 제시 구조를 계승하였다. ‘전문’과 ‘하위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어과의 성격에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는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기능과 전략, 태도에 대한 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학습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또한 국어 교육 내용의 특성과 관련하여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향하여 구성하였다.²⁹⁾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문학 과목 교육목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문학 과목 목표 비교

제6차	제7차
<p>가. 문학 일반과 한국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p> <p>나.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감상하게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p> <p>다. 한국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세계 문학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바른 위상과 방향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p>	<p>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p> <p>가. 문학 활동의 기본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p> <p>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p> <p>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p>

※ 출처 : 박미경, 「고등학교 설화 교육의 내용·조직·방향 연구 - 문학 교과서의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3.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계발시키고,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적합한 교

29) 박미경(2000), 전제논문, p.13.

육 내용을 제시해 주어, 교육 내용과 학습 능력 사이의 상승적 상호 작용이 일어나도록 교육과정의 개별화 내지 다양화를 추구하였다.³⁰⁾

즉,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으로 자율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자기의 지적·정의적,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미 있는 창조적 학습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거시적 취지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 내용에 ‘학습 능력과 성취 수준을 고려하고, 각각의 수준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이 확대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하여, 국어 교육의 궁극적 이상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정의영역(情義領域)의 교육보다는 지식과 기능의 영역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식과 기능의 교육은 훌륭한 기능인을 양산해 사회에 기여하며, 완전한 기능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능하다.³¹⁾ 이에 비해 정의영역은 결국 인간다움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각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것인데, 문학은 이러한 인간의 개인적 감정이나 인간들 사이의 삶을 소재로 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매체로 하며, 인간의 삶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특이한 양식이다.

교육이 단순한 기능인의 배출에 있지 않고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존재를 기른다고 할 때, 문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여기에 있다.³²⁾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주설화 교육은 정의영역의 목표 달성에 유용할 뿐 아니라, 제주설화에는 제주인의 생활상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학습을 통해 제주인의 독특한 삶의 지혜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으며, 제주의 향토사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국어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에도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다.

30) <http://kotri.re.kr>, 한국교과서연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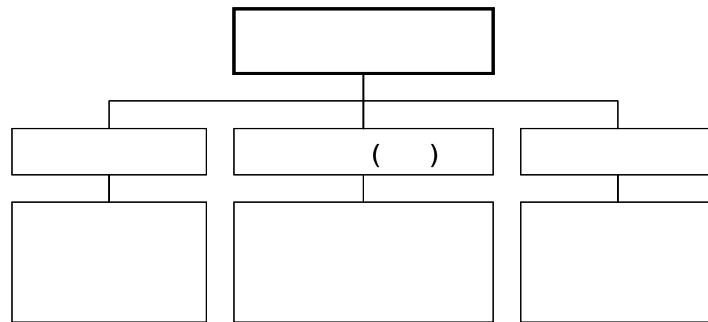
31)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6, p.91.

32) 구인환, 상계서, pp.91~93.

제3장 고등학교 교과서의 설화 수용 양상 분석

고등학교 국어과목의 교과서는 국어교육의 기본서로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국어 내용을 모두 표상(表象)해야 하는 교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 과목에서 가르칠 내용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이 국어교과서에 잘 표상 될 때³³⁾ 국어교과서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체제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화법, 독서과목이 추가되어 국어, 문학, 작문, 문법, 화법, 독서의 6과목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들 공통 필수과목과 과정별 필수과목(선택과목)의 관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³⁴⁾



<그림 1> 공통 필수과목과 과정별 필수과목, 선택과목과의 관계

※ 자료출처 : 권정인, 「설화교육연구-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56. (연구자 재편집)

33) 교재는 ① 물리적인 실체이어야 하고 ②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③ 교수·학습내용이 표상(表象)되는 것이라고 할 때, 교재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수·학습내용의 표상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재는 가르치고 배울 내용이 의도되어 있고, 표상되어 있을 때 교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성영, 「국어 교재의 편찬」, 『국어교육학 연구』 2집, 국어교육학회, 1992, pp.73-76.

34)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개성, 적성, 능력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준별, 특성별 과목을 개설하였는데 국어 과목에서는 ‘화법’과 ‘독서’ 과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의 중앙 집중을 막기 위하여 공통 필수과목은 교육부가 결정하고, 과정별 필수과목은 시·도 교육청이, 과정별 선택과목은 과정별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지 못한 과목과 교양 선택과목 중에서 학교가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하였다.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1995, pp.21-28, pp.60-61.

그러나 말하기, 듣기, 문학 영역을 직접적으로 표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언어 영역의 표상에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국어교육 교재인 설화는 공통필수과목인 국어교과서에는 단 한편도 실리지 않았고, 단지 선택과목인 문학교과에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설화 수용 양상은 문학교과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교과서는 18종으로 되어있고, 단위 배당은 8단위, 128시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에서 설화문학의 수록은 그것을 포함한 중단원과 대단원의 관계 속에서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문학교육 체계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중 한 교과서에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문학 제재가 3회 이상 수록된 교과서는 5종에 달한다. 교과서별 설화문학 제재의 수록 양상을 보면 다음<표 3>과 같다.

<표 3> 교과서별 설화문학 제재의 수록 양상(제6차)

구분	금성	천재	서적	대한(최)	동아(김)	동아(우)	대한(민)	한샘(김)	대일	지학(권)	한샘(구)	지학(박)	선영	지학(김)	학문	교학	노벨	민
단군신화	○	○	○	○	○	○	○	○	○	○		○	○	○	○	○		
조신의꿈		○						○			○		○					○
동명왕신화		○				○					○							○
구토설화										○		○						○
지귀설화			○															
지하국대 적퇴지				○										○	○			
서동설화																○		
도미설화					○													
연오랑 세오녀														○				
단종의혼령																		○
달팽이가시		○																
온달								○										

구분	금성	천재	서적	대한 (최)	동아 (김)	동아 (우)	대한 (민)	한샘 (김)	대일	지학 (권)	한샘 (구)	지학 (박)	선영	지학 (김)	학문	교학	노벨	민
설씨녀와 가실			◎															
김현감호							◎											

※ 자료출처 : 박미경(2000), 전계논문, pp.24-25.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군신화>는 15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가장 많이 채택된 제재이다. 다음으로, <조신의 꿈>이 5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고, <동명왕신화(주몽신화)>가 4종의 교과서에, <구토지설>, <지귀설화>가 3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아플론과 다프네>, <프로메테우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홍수신화>, <물리 고도 조심성 없이> 이렇게 5편의 세계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57편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³⁵⁾

<표 4> 문학교과서에 실린 설화 제재의 분류(제6차)

번호	지은이	출판사	설화			계
			신화	전설	민담	
1	구인환·김홍규	한샘출판	2	1		3
2	김대행·김동환	교학사	1		2	3
3	김봉균·최혜실	지학사	1	1	2	4
4	김열규·신동욱	동아출판사	1	1		2
5	김윤식·김종철	한샘출판	2	2		4
6	김용직·박민수	대일도서	1			1
7	김태준 외	민문고	2	1	1	4
8	권영민	지학사	1	1	1	3
9	남미영 외	동아서적	1	1	2	4
10	박갑수 외	지학사	2	1	2	5
11	박경신 외	금성교과서	1			1
12	성기조	학문사	1		1	2
13	오세영·서대석	천재교육	3	1	1	5
14	우한용 외	두산동아	2		2	4
15	윤병로 외	노벨문화사		2	1	3
16	이문규·권오만	선영사	2	1	2	5
17	최동호 외	대한교과서	1		1	2
18	한계전 외	대한교과서	1		1	2
계			25	13	19	57

35) 권정인, 「설화교육연구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59.

위에서 볼 수 있듯이 18종 문학교과서 중 신화, 전설, 민담이 골고루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는 7종에 불과하다. 나머지 11종 교과서는 신화, 전설, 민담의 배치가 제대로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얼마 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과 과목의 설화 수용 양상을 살펴보더라도 국어교과서(상)에 ‘용소(龍沼)와 며느리바위’라는 한 작품이 실려 있다는 점 외에는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문학교과서의 설화 제재 수록 양상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문학교과서별 설화문학 제재의 수록 양상(제7차)

작품	두산	교학	금성	디딤	문원	민중	블랙	상문	중앙	천재	한교	한미
단군신화	◎		◎	◎			◎		◎		◎	◎
주몽신화		◎										
혁거세왕										◎		
삼태성	◎											
화왕계	◎											
연오랑세오녀					◎							
조신의 꿈				◎					◎			
온달전						◎						
호원						◎						
지귀설화						◎						
이야기 주머니				◎								
달팽이 각시							◎					
바리공주				◎								
아폴론과 다프네-그리스로마 신화(불핀치)			◎									
프로메테우스-그리스로마 신화(불핀치)		◎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오비디우스)				◎								
아라비안 나이트			◎	◎			◎					

※ 출처 : 연구자 자료 수집 구성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교과서에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문학 제재가 3회 이상 수록된 교과서는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5종이며, 하나의 설화에 치중되는 것보다 각 교과서마다 비교적 다른 종류의 설화를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신화, 전설, 민담의 배치가 제대로 고려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제재 선택에 있어서도 영역이 확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고등학교 설화교육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등학교 설화교육은 거의 문학교과서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통필수 과정인 국어교과서에는 ‘용소(龍沼)와 며느리바위’라는 작품이 단 한 편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언어 영역 제재(대단원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문학교과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설화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문제이다. 또 문학교과를 채택한다고 해도 어느 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설화의 어느 한 영역이 교육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주로 문학 영역에만 설화 제재가 취급되어 온 것은 설화를 국어교육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기·듣기 교육을 강조해 온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서, 설화는 그 속성상 문학 영역과 더불어 말하기·듣기 영역에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목적에 맞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⁶⁾

이렇듯 설화문학은 교육적인 면에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제재만 제한적으로 다루며 그 영역 또한 문학교과서에만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화가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교육의 제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어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4장 제주설화를 이용한 학습자료 개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과정 및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36) 김미, 전계논문, 1997, p.38.

서 초·중·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등을 학교 급별로 제시하지 않고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비연속성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 내용의 선정·조직이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표 6>에 제시한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 교육목표는 10년 동안 학습한 결과로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인 셈이다.

<표 6>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 교육목표

<p>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p> <p>가. 언어 활동과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p>

※ 출처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따라서 이 장에서는 <표 6>의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 교육목표를 염두에 두어 제주설화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그 지도 방법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설화 교육의 내용 선정 방법을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학 지식의 내용에 관한 관점에서는 설화문학의 장르 교육의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또,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는 언어를 하나의 문화로 간주할 때, 언어 문화인 문학을 통해 문화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교육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설화문학의 위치를 점검해 본다. 그리고 감상과 이해를 주로 한 문학작품의 실제에서 생산의 개념이 도입된 문학작품의 창작과 관련하여 제주설화의 전승이 말에서 글로 변화됨을 감안하여 언어 사용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세 방법에서 두루 관여하게 되는 문학적 상상력을 내용으로 선정하여 제주설화 문학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상상력 기제를 신장시켜 줄 수 있을 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1절 제주설화 내용체계

대부분의 설화는 일정 부분 설화 생성 지역의 여러 환경과 역사를 반영하게 마련으로 제주설화 역시 이러한 바탕 위에 성립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제주의 이야기와 노래들은 결코 즐거움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주인의 생활 바로 그것이었다. 제주 사람들은 철 따라 날 따라 마을마다 한두 개씩이나 있는 마을 당으로 가서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서글픈 신의 내력담을 들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생각했고, 삶에 부딪치는 갈등을 극복하며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제주인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이런 이야기 중, 신화에 해당하는 것이 ‘본풀이’이다.

‘본풀이’는 ‘본(本)’과 ‘풀이’의 복합명사이다. ‘본’은 ‘근본, 본래, 본초(本初), 본원(本源)’ 등의 뜻으로 신의 내력을 의미하고, ‘풀이’는 ‘풀다[解]’의 전성명사로서 ‘해설, 해석, 설명’이라는 뜻이다. 본풀이는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게 되기까지의 유래와 내력을 해설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심방[巫堂]이 무의(巫儀)를 할 때 대부분 제상(祭床) 앞에 앉아서 장구를 치며 노래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 본풀이는 심방이 그들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의에서 노래한다는 면에서 서사무가요, 그 내용이 신의 내력·행적을 설명하는 신성한 설화라는 면에서는 신화가 된다.³⁷⁾

제주도의 신화 ‘본풀이’는 그 주인공의 신격(神格)과 분포의 지역적 범위 등으로 보아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나눌 수 있다.

일반신본풀이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신들의 내력담이다. 이는 주로 큰굿에서 노래 불려지는데, 현재 큰굿에서 불려지는 일반신본풀이는 12편이다. 이 열두 본풀이에는 천지창조의 원리를 풀이한 <천지왕본풀이>, 아기의 무병장수와 자식을 점지해 주는 신의 내력담인 <삼승할망본풀이>, 마마신의 내력담인 <마누라본풀이>, 무조신(巫祖神)의 내력담인 <초공본풀이>, 서천꽃밭을 맡은 꽃감관의 내력담인 <이공본풀이>, 재앙과 복을 주는 신의 내력담인 <삼공본풀이>, 저승 차사(差使)의 내력담인 <차사본풀이>, 액막의 신의 내력담인 <스만이본풀이>,

37)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한국고전문학진집 2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p.7.

기구한 운명을 극복하고 불당에 불공을 드려 새의 몸으로 탄생하는 지장신의 내력담인 <지장본풀이>, 농경 목축의 원리를 풀이한 <세경본풀이>, 문신(門神)과 조왕신의 내력담인 <문전본풀이>, 집안의 부와 곡식을 수호해 주는 사신(蛇神) 칠성의 내력담인 <칠성본풀이>가 있다.

당신본풀이는 도내 각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의 내력담이다. 당은 마을제를 지내는 신당(神堂)으로서 촌락 수호신이 좌정해 있는 신성처(神聖處)인데, 그 신은 일반적으로 마을마다 다르다. 이 당신본풀이는 신의 계보, 이름, 직능 등을 간단히 나열한 짧은 것, 곧 서사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설화의 형태로 구성되어 문예화한 것까지 있다.

조상신본풀이는 일월조상의 내력담이다. 일월조상이란 한 집안 내지 일족(一族)의 수호신을 말한다. 이 조상신본풀이도 서사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부터 정연한 설화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 것까지 다양하다.³⁸⁾

이러한 제주도 무속신화 ‘본풀이’ 속에는 제주인의 상상력과 문화, 제주 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 체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미의식이 발현되고 있다.³⁹⁾

허춘은 “제주도에는 특히, 전설도 많고 서사무가도 많고 민요도 많은데, 이러한 제주 설화는 대체로 외지신을 수용하여 경합(‘삼성신화’, ‘천지왕본풀이’, ‘세경본풀이’,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상창하르방당본풀이’, ‘송당 퀘네깃당본풀이’, ‘서귀 동흥본향당본풀이’ 등)과 호양(‘삼성신화’, ‘칠성본풀이’, ‘토산당본풀이’, ‘서귀본향당본풀이’, ‘송당 퀘네깃당본풀이’ 등)이 혼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호양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점은 본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좁은 지역인 데 비해 풍수설화가 많다. 또한 불박이라 자연히 그 표출방식이 과격하지 않고 공격 대상도 무차별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⁰⁾고 제주설화, 특히 ‘본풀이’를 분류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본토에는 창조신화가 없는데 반해 제주의 무속신화에는 창조신화가 있음을 들어, 그 문화의 원류가 본토와는 이질적이면서 고유한 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더구나 무속신의 조상은 버림받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무속신은 반이데

38) 현용준·현승환(1996), 상계서, pp.9-11. (연구자 재편집)

39)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제주 :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pp.15-16.

40) 허춘, 「제주 설화의 특성 연구」, 『제주도연구』 제16집, 1999, pp.131-132.

올로기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니, 이는 본토와는 다른 삶의 질서를 제주 사람들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⁴¹⁾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천지창조설화와 같은 성격의 것이 본토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니 이를 제주도 고유의 설화 모티브라 하기는 곤란하다. 김현선의 연구⁴²⁾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집된 천지창조설화는 아래 <표 7>과 같이 8편이다.

<표 7> 현재 전승되는 천지창조설화

번호	자료명	구연자	전승지	채록자	자료출처	발표일
1	창세가	김쌍돌이	함흥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1930
2	창세가	전명수	강계	손진태	신가정	1936.
3	생긋	강춘옥	함흥	임석재 외	관북지방 무가(추가편)	1966
4	삼태자풀이	정운학	평양	임석재 외	관서지방 무가	1966
5	당고마기노래	박용녀	강릉	김선풍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1977
6	당금야기①	최음진	영해	최정여 외	동해안무가	1976
7	순산축원	권순녀	울진	김효신	교육학논총	1977
8	시루말	이종만	오산	적송지성 추엽용	조선무속의연구(상)	1937

또한 무속신화에서 주인공은 평범하지 않은 출생을 하고 버려지거나 축출된 후 고난을 극복하여 신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 모티브 역시 제주 특유의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현길언의 주장은 일부에서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곧 ‘무속신의 조상이 버림받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무속신은 반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관점’은 반드시 옳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전혀 부당한 것만은 아니다.

동으로는 일본, 서로는 중국, 북으로는 한반도, 남으로는 남중국과 둘러싸인 절해고도 제주도가 고대에는 탐라국이라는 독자적 성격의 독립국가였다가 고려조에 이르러 한반도에 복속되면서 조선조에는 중죄인의 유배지로 알려졌다가, 제주도에 부임한 중앙 관리들이 제주민을 착취했다는 여러 연구 성과들을 고려하면 제주인들의 외부인에 대한 반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제주설화에 반영되

41) 현길언, 「제주문화의 기저와 성격」- 전환기 제주문화의 방향 모색, 제주국제협의회 제10회 학술회의 발표 요지, 1999, p.27.

42)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44.

어 제주인의 외부에 대해 갖는 이런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는 있겠다.

일반적으로 신화의 주인공들이 출생 후 버림받는 것은, 그들을 어떠한 고난이라도 극복하는 능력을 소유한 영웅상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승민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난 극복의 사례로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고 건국하는 이러한 화소는 주몽신화, 탈해신화 등 육지부 설화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신화의 기능과 성격이 다르듯이 영웅설화에 나타난 주인공의 성격은 제주와 본토가 다르다. 제주도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힘센 장사들이 좌절을 보더라도 그러한 차이는 드러난다. 제주도의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날개를 잘라버리고 아이를 살려내지만 본토의 설화에서는 3족을 멸한다는 명분 때문에 부모가 직접 아이를 죽이는 내용이 나오고, 오누이 힘내기 전설의 경우 제주도에서는 누이가 남동생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오누이가 갈등하지 않고 공존하고 있지만, 본토의 아기장수에서는 경쟁에서 아들은 이기고 누이는 패하도록 설정하여 패한 자가 죽임을 당하도록 한다. 이러한 차이는 제주설화의 특징이라 하겠다.

전설이나 민담에 해당하는 제주설화는 크게 풍수설화와 인물설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풍수설화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구비문학대계』⁴³⁾(제주편 9-1~3)에는 총 254편의 설화가 채록되어 있다. 채록 편수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풍수(명당, 단혈, 지관(地官))에 관한 것이 25편, (아기)장수(장사)에 관한 것이 32편으로 편수에서는 다른 곳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단혈 설화가 6편이나 되는 것은 제주는 큰 인물이 나올 땅이라는 염원의 반대적 표현이요, 특히 ‘아기장수 설화’가 10여 편⁴⁴⁾인 것 또한 장수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반영이다. 제주 설화 262편을 대상으로 산출한 통계⁴⁵⁾에 의하면, 자연과 관련된 것이 33편, 힘센 장사(할머니)에 관한 것이 29편인데 비해, 풍수지리(명당)에 관한 것은 51편으로 가장 많다. 이렇게 제주에 풍수설화가 많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비교지만, 명당을 바라는 마음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점은 특히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제주설화에는 유독 인물설화가 많은데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이인, 장수, 거인, 건달,

4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3, 1983.

44) ‘아기장수 설화’는 그 범주 설정에 따라 편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헤아리기 어렵다.

45) 김항원,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p.107.

여성, 계모, 처첩, 과부, 고부, 열녀, 효자 등의 11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⁴⁶⁾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인(異人) : 거제의 정군료(鄭君了), 울릉도의 호일 영감처럼 이인은 전국 어디나 있으나 제주에는 상대적으로 많다. 『구비문학대계』(제주편 9-1~3) 소재 이인 설화는 16편이나 되어 이인을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인을 바라는 심정은 도선적 사고와 맞물려 있지만 섬이라는 입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슬기로운 사람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되는 바, 열악한 생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② 장수(將帥) : 제주의 ‘아기장수 설화’는 사회가 거부하는 날개 달린 아기를 육지부와는 달리 수용되는 인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인 삶의 진기성을 보여준다. 옳은 뜻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펼 수 없는 사회 상황에서 태어난 영웅이나 장사가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한 방법을 보여준다.⁴⁷⁾ 비극성이 거의 소멸된 이 설화는, 큰 인물이 날 수 없었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에는 유독 장사 이야기가 많다. 한연 한배임재, 오찰방, 양태수 등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고, 막산이, 김당장, 송하천, 오찬이, 강씨, 송마장, 부대각 형제, 한효종 등은 힘이 아주 뛰어났다. 이들 중 막산이, 정서방, 새샘이를 제외하고는 비극적인 상황 없이 평범하게 사는 유형이다. 현실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장사 이야기는 향유층에게 동질감을 주어 한층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③ 거인(巨人) : 거인설화는 세계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바, 우리 나라에도 고르게 분포되어 『구비문학대계』에는 거인(남성, 여성) 설화가 50여 편이 채록되어 있다. 주로 거인이 움직이는 바람에 바다, 육지, 산, 바위 등의 각 지형이 만들어지고 지진이 생겼다는 내용이다.

제주의 여성 거인은 설문대할망으로 창조신의 성격도 보여주는 ‘설문대할망 설화’는 제주설화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우리 나라 설화의 특징 중 하나가 전설과 민담이 혼효되어 있는 것2인데, 이 설화는 여기에 신화적 요소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 이는 원래 신화에서 신성성이 거세되어 전설이나 민담으로 변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제주에서는 신이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사람과 가까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46) 허춘, 전계논문, pp.146-163.

47) 현길언·김영화, 전계논문, 1980, p.170.

④ 건달(乾達) : 사람이 모여 살면 어디에나 엉뚱한 짓을 하는, 김선달로 대표되는 인물이 있기 마련이다. 제주는 변인태가 가장 대표적 인물이고, 강별태, 남노선이, 전만능, 양장의, 얼썩 등도 이에 포함된다. 도서지방의 특색이겠지만, 불박이라는 점은 곧 행동의 제약을 불러온다. ‘기존 윤리 관념에 대한 도전’은 이들의 공통점이지만, 불박이는 자연히 그 표출 방식이 과격하지 않고 공격 대상도 무차별적이진 않다. 이는 방학중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보아 제주에는 ‘속이고 속기’가 본토보다 적고 짓곳은 정도가 위험 수위를 넘지 않는다.

⑤ 여성(女性) : 제주설화의 여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진취적이며 근면하고 강인하다.

친정의 명당을 차지한 딸 이야기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당을 찾는 며느리 이야기는 본토에도 널리 전하는 설화 유형이다. 자기 자식을 돌이나 죽이면서도 굴하지 않고 귀신을 물리친 ‘귀신을 이긴 손병사 어머니’ 등에서 ‘강한 제주 여인상’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힘 센 여자가 많다는 사실은, 밭일, 바다 일, 집안 일 등에서 여자들의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던 제주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동생보다 힘이 센 누나가, 힘만 믿고 오만한 동생을 누르지만 결국 일부러 저준다는 내용의 ‘오늬 힘내기’ 설화는 제주에도 널리 퍼져 있다. 누나는 모성애적인 행동을 하고 자신은 자결하는 등의 행동으로 마무리하기도 하는데 이는 남성 본위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⑥ 계모(繼母) : 계모가 전실 자식을 박대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다. 설령 자기의 친자식과 이해 관계가 없어도 전실 자식이 잘 되는 일은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

제주에도 계모설화가 수 편 전하는데 거의 전형적인 계모담으로, 무속신화를 그대로 구술한 것을 제외하면, ‘다슴애기’⁴⁸⁾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오훈장과 그의 계모’는 어려서 생모를 잃은 전처 소생을 정성껏 공부시킨 계모 이야기다. 어느 지역이나 계모의 이야기는 선악 양면이 동시에 드러나고 이런 상황은 제주 또한 마찬가지지만, 무속신화인 ‘문전본풀이’를 제외하면, 제주에서는 전반적으로 계모의 악함이 두드러지지 않는다.⁴⁹⁾

4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설화집성 (1)』, 1976, pp.332-334.

49) 허춘, 『제주 설화의 일고찰』, 『국문학보』 13집, 1995, pp.182-183.

⑦ 처첩(妻妾) : 첩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특히 여성)의 상정이다. 제주에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어서 중에게도 처자가 있었으며 결인이라도 처첩을 거느렸다고 한다. 그런데 ‘본풀이’와 민요에는 처첩간의 갈등이 보이지만, 처첩을 주제로 한 민담이 그리 많지 않고 갈등의 정도도 대단히 약하며 오히려 포용하기까지 한다. 또 본부인이 마라도로 귀양간 것을 안 첩은 그 귀양을 풀도록 남편에게 권하기까지 한다.('토산당 일뤼도본풀이', '신증도푸리') 제주 역시 첩은 증오의 대상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⑧ 과부(寡婦) : 성도 이름도 모르는 남자가 남편 없는 여인에게 왔다갈 정도로 이들의 정조관념은 매우 자유로우며, 이러한 과부의 불륜이 화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제주에서 성관계가 암묵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⑨ 고부(姑婦) : 언제 어느 때나 고부 사이의 감정은 미묘하지만, 설화에서는 대체로 악한 며느리가 많고 그로 인해 벌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제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아서 '시집살이요'가 상당히 채록되어 있으나,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고된 시집살이에 관한 설화가 거의 채록되지 않았다. 이는 구술시 시누이, 동서 등이 섞여 앉은 채록 상황 탓도 있겠지만, 제주의 가족 생활 권역이 각자 분리되어 있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⑩ 열녀(烈女) : 열녀담의 제보자는 대체로 남자가 많다. 『구비문학대계』의 열녀담 185편 중 145편이 남성 제보자라는 사실은, 정절이라는 덕목을 남성 쪽에서 좀더 중요시한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열녀는 언제 어디에서나 공유되고 높이 평가되는 가치로 이 점은 제주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구비문학대계』(제주편)의 설화 254편 중 열녀담은 5편으로 이 중 '토영 열녀'를 빼면 4편뿐임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겁탈이나 보쌈도 없는 제주설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첩이 인정되고 재혼에 관대하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⑪ 효자(孝子) : 효행설화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 자식 쪽보다는 부모 쪽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화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제보자의 연령층이 40대 이상이고 특히 60-70대가 많은 까닭일 것이다.⁵⁰⁾ 이런 점은 제주도 다르지 않다.

실제 생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제주설화의 주인공은 비범한 인물들

50) 김대숙,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p.198.

이었으나 그 비범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주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불행한 사람들이었다. 그러기에 그 비범한 사람들의 불행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제주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생각했고, 그런 불행이 그들 비범한 사람들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 자신의 한스러운 삶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된다⁵¹⁾는 것이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사회적 상황 속에서, 제주인들은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제주만의 독특한 삶의 양식을 형성하였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제주설화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설화의 교육을 통해 수천 년 축적된 제주인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게 함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 살아 나가야 할 방식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제주설화를 이용한 학습모형

구조화된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수·학습 모형의 구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준별 교수·학습 모형과 설화지도 모형에 근거하여 새로운 제주설화의 수준별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수준별 교수·학습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모든 학생들이 각 단원의 학습목표에 도달하고, 기본학습을 이수하도록, 소단원 말에 심화·보충학습 과정을 제시하며 자기 점검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 학습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협력 학습 또는 개별화 학습을 지향한다는 수준별 교수·학습 모형 구안의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의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⁵²⁾

- ① 진단평가 : 수업 전에 먼저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이 학습하고자 하는 단원의 학습 준비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거나 능력별 조를 편성하는데 활용한다.
- ② 기본학습 지도 : 학습자의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여 그들의 능력과 적성에 적절한

51) 현길연, 『제주도의 장수설화』, 서울 : 홍성사, 1981, p.13.

52) 김주훈 외,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C 98-7,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54-56.

학습 과제를 제공하도록 한다.

- ③ 심화·보충학습 : 형성 평가 결과나 수업 시간에 교사의 관찰 결과 또는 학생들의 선택 등을 고려하여 심화·보충 활동을 위한 학습 과제를 선택하거나 심화·보충 학습 조를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 편성을 할 때에는 학생의 자발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화·보충학습은 수행할 과제의 난이도를 표시하고 학습자가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거나 기본학습을 먼저 끝낸 순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목표에 도달한 경우에 심화·보충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설화지도 모형을 살펴보면, 수업 과정의 대표적인 일반 모형으로 수업 과정을 수업 절차의 차원에서 정리한 글레이저(R Glaser)의 수업모형⁵³⁾이 있다. 그러나 이 수업모형을 설화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설화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작품의 이해와 감상으로 이는 수용자의 인격적 차원의 성숙과 변화를 기대하는 내면화 과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 설화 수업모형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설화교육은 지식을 가르치거나 기능을 기르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설화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하여 체험의 확대, 정서의 순화를 피하고 상상력, 창조력, 통찰력, 심미성, 도덕성을 기르며,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설화 학습은 인지적 수준에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적 특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블룸은 교육 목표 분류에서 감수(感受), 반응(反應), 가치화(價値化), 조직화(組織化), 성격화(性格化)의 5단계로 설명하였다.⁵⁴⁾

53) 정원식, 『정의의 교육』, 배영사, 1973, pp.14-15. ; 최운식·김기창, 전계서, pp.125-131.

이 모형은 그 속에 현대적인 여러 교수의 원리를 잘 포괄하고 있으며, 수업 운영의 절차가 지극히 간명하게 설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잡한 수업 모형들을 이 모형의 기본 원리 속에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모형이다.

① 수업목표 → ② 도입 행동 진단 → ③ 학습지도 → ④ 학습 성과 평가

54) ① 감수(感受) : 문학작품을 대하는 첫 단계로 학습자가 문학작품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받아들이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주의 집중을 해야만 감수(感受)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내면화의 출발이다.

② 반응(反應) :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참여 활동의 단계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만족을 얻는 일로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읽은 후에 체험하는 반응은 인지적(認知的), 정서적(情緒的), 심미적(審美的)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이대규, 「문학 교육론」,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pp.39-41.)

따라서 설화 제재 수업에서의 효율화는, 제재 자체는 교육의 내용이 되고 모형을 통해 통제되는 일련의 과정은 교육의 방법이 된다. 또 그 제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리고 그 제재를 통해 무엇을 학생들에게 형성해 줄 것인가에 따라 교수·학습 모형은 그 구체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을 전제로 설화 제재의 수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⁵⁵⁾ 먼저 설화교육의 텍스트는 완결된 작품의 상태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주로 일부분이나 한 국면을 편의상 원용하기 때문에 제한적 요소의 결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설화 수업 지도단계에서 설화 작품을 수용하는 기본적 과정은 일단 학습자의 체험, 배경지식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인 ‘독해’의 과정에서 출발하여 설화를 수용하는 학습자에게 수용의 공간을 보다 넓게 개방하고 열린 사고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이 설화의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체험으로서의 설화교육을 염두에 둔 것으로 설화교육을 통한 문학적 체험과 학습자의 현실적 체험과의 ‘연속성’을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전제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업절차 모형의 기본 구조를 설화 제재 수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변용하고 조절하여 제주설화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③ 가치화(價値化) : 작품 이해의 활동에 참여하여 얻은 결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설화교육 활동의 본질적인 단계이다. 어떤 특성이 한 개인에게 가치화가 될 때 작용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가치와 일치되느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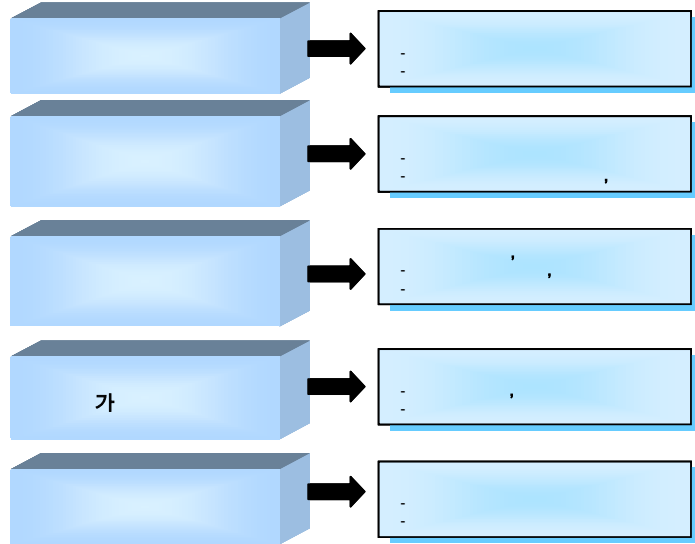
④ 조직화(組織化) : 학습자는 여러 가치를 내면화해 감에 따라 그는 하나 이상의 가치가 관련된 사태에 당면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여러 가치를 하나의 체계로 조직하고,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결정하며, 또한 하나의 계급적인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 이것을 조직화의 과정이라고 한다. 문학교육에서 이 단계는 문학 작품에서 얻은 여러 가치를 체계화, 개념화하여 실제 사회생활의 원동력이 되도록 보다 복합적이고 고도화된 가치로 조직화하는 단계이다.

⑤ 성격화(性格化) : 내면화 과정의 최종적인 단계로 어떤 정의적 특성이 내면화 과정에서 이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그 학습자의 여러 행동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 도달하게 된 정의적 특성은 오랫동안 그 개인에게 머무르면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또 그와 같은 성격화된 특성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내면화의 최종 단계를 거친 정의적 특성은 그 개인에게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 한 정서나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문학교육에서의 이 단계는 문학 작품에서 얻어 조직화된 가치가 학습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인격화되는 단계이다.

정원식, 『정의의 교육』, 배영사, 1973, pp.14-15. ; 최운식, 김기창, 전게서, pp.125-131.

55) 구인환 외, 전게서, pp.226-236.

<그림 2> 교수·학습 지도 연구 모형



(1) 1단계 : 계획단계

학습자의 배경지식 활성화를 위한 단계로, 제주설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배경 등의 사전 경험을 다른 학습자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경험의 공유를 통해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경험이 다른 학습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학습자의 경험을 덧붙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학습 목표를 확인시켜 준다.

학습자들에게 제주설화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할 수도 있다.

(2) 2단계 : 진단단계

이 단계에서는 제주설화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조건과 학습과정 특성 그리고 설화 감상 능력 및 태도, 감상 욕구 및 흥미에 관한 학습자의 특성을 진단한다.

주로 읽기를 통해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요 등장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고, 현실 반영론적 입장에서 배경의 역할, 그리고 작품의 주된 사건이 전개되는 양상 등을 토의함으로써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의 개입이 지나치면 교사 위주의 수업이 전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토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3) 3단계 : 지도단계

제주설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학습자의 흥미 유발, 학습동기 부여와 함께 비디오를 이용하여 설화의 채록 상황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통해 채록된 설화를 들려줌으로써 설화의 장르적 특징을 설명하고, 더욱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해 선정된 설화를 통독하거나 정독한다. 전자를 통해 줄거리, 장면,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후자를 통해 주제, 갈등구조, 문체, 시점, 배경, 인물의 성격, 구성, 단어의 뜻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정리 및 발표를 통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4단계 : 평가단계

앞의 단계들을 정리하는 단계로 제주설화를 접하여 느낀 생각을 말로 표현하거나(구연), 듣기, 감상문 쓰기와 함께 역할극과 제주설화 문학 답사 등의 활동을 한다.

(5) 5단계 : 내면화단계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나 감상을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의견을 상호 교환하며 서로 협력하여 이해의 폭을 확대시켜 학습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제주설화의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해 보았다. 이 모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제주설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설화의 속성에 부응하는 ‘설화의 교수·학습’ 모형이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이 장에서는 제주설화를 국어과 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1절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과정인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기존 교육과정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이 많아져서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선형 교육과정 방식이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학년 간, 학교 간 지나친 중복이 없도록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내용 차원에서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운영 차원에서 학습자의 능력·적성·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천, 제도 차원에서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의 네 가지를 제7차 교육과정 개정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⁵⁶⁾

교과 자체의 논리보다 국어의 교육 개혁적 지표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별 수업을 일괄적으로 논의하다 보니 수준별 수업에 대한 심한 거부감⁵⁷⁾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시대의 요구이며 거절할 수 없는 좋은 제안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상구는 우리 문학 교육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⁵⁸⁾

- (1) 가치관 중심 문학 교육 시기 : 1950년대까지
- (2) 텍스트 중심 문학 교육 시기 : 1960년대 - 1980년대
- (3)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시기 : 1990년대 이후

문학 교육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념 교육을 시키던 시기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내용을 교육하는 과정을 거쳐,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합당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습

56) 김광주, 「문학 영역의 수준별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pp.19-26.

57) 김대행,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념」, 『교육과정 연구』 제14호, 1996, p.32.

과연 수준별 교육과정이 국어과, 특히 문학과목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적 시각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회의가 그것을 제기한 주체의 학문적·교육적 순수성에 대한 의혹과 개별 교과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주된 것이라는 점이다.

58) 이상구,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8, pp.28-29.

자 중심 문학 교육⁵⁹⁾은 시대 흐름이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 방안 중의 하나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사고 신장을 요구하며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이 발전해 나가는 좋은 대안이라 하겠다.

특히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학습은 학습 능력과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해석적이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준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이 확대되도록 하는 학습활동에 중점을 둔다.’⁶⁰⁾고 하여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을 밝혔다. 따라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연구 개발한 자료⁶¹⁾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심화·보충 학습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심화학습은 기본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한 학생들, 대체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이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으로 기본학습에서 다루는 내용의 깊이나 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심화학습의 내용은 기본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활동을 제시하되 기본학습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본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국어 사용의 경험을 다양화하고 심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계획해야 한다.

보충학습은 기본과정의 교육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 대체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이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으로 기본과정에서 학습한 것을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보다 확실히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 학습에 흥미와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심화·보충형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학습하게 한 뒤 평가하거나 선택해서 활동하게 한 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동기 부여나 학습 의욕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화·보

59) 박영목 외,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서울 : 교학사, 1995, pp.278-280.

학습자 중심 문학 이론은 문학 텍스트를 수용한다고 할 때, ‘수용’이라는 것은 독자의 역할이며, 즉 창작 텍스트가 수용자에 의해서 구체화될 때, 독자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측면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수용 미학의 중심적 토대를 이루는 것이며, 문학 텍스트의 이해 기준을 수용자에게 중심을 두고 하는 말이다.

60) 교육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7.

61) 정구향 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충 활동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이 연구에서도 모든 학생이 능동적인 자세로 단원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기본학습을 이수하며, 단원 말에 심화, 보충학습 과정을 제시하고, 자기 점검을 통해 심화, 보충학습 과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협력학습 또는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지도의 방향을 설정한다.

수준별 학습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교수·학습 모형의 진단, 지도단계에서 기본학습으로 작품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이루어진 후 수준별 학습을 시작한다. 앞의 단계에서 배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작품에 대한 분석적 방법으로 소단원 학습 활동 부분에서 작품에 대한 등장 인물의 성격, 사건의 내용 등 작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학습지로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학습지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학습을 통해 학습목표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여 심화단계나 보충단계를 학습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학습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기본학습 과정에 어려움을 느껴 학습이 만족스럽지 못한 학습자는 보충학습을 하며, 기본학습을 충실히 하고 학습목표에 도달하여 스스로 만족스러운 학습자는 심화학습을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수준별 학습과정에 따라 작성한 제주설화 지도안의 예시는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수준별 학습지도안 - 수업 개관(예시)

학습제재	삼공본풀이	차시	1/1
학습 목표	1) 제주설화를 접하고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파악한다. 2) 작품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그 속에 반영된 의미를 이해한다 3) 작품의 주제와 작품에 반영된 문화적 요소를 파악한다. 4) 본풀이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 작품에서 신의 기능을 파악한다. 5) 이 작품과 타 설화 또는 기록문학 작품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6)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을 파악한다.(보충) 7) 타 작품과의 연관성에 관련하여 설화의 의의를 이해한다.(심화) 8) 설화의 일반적 갈등구조를 파악한다.(심화)		
학습 흐름	교수·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동기 부여	▷ 단원 개관(단원의 내용 소개) ① ▷ 학습 동기 유발 및 본시 학습 목표 확인 ②		· 준비학습 자료

학습 흐름	교수·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선정 계획 수립	▷ 학습 문제 선정 : 과제학습장 제시 ▷ 문제 해결 방법 수립 · 학습 형태 : 개별 및 모둠 학습 · 학습 방법 : 설명, 질의 응답, 토의 및 발표 ▷ 준비 학습 : ‘삼공본풀이’의 현대어역(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유인물 읽기. 과제학습장의 문제 풀기 ③			· 과제학습장		
문제 해결	▷ 학습 전개 ④ 1) ‘삼공본풀이’의 내용 파악 2) 작품의 갈등구조 파악 및 그 속에 반영된 의미 이해 3) ‘삼공본풀이’의 주제 및 반영된 문화 요소 파악 4) ‘본풀이’의 성격 이해 및 ‘삼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의 기능 파악 5) ‘삼공본풀이’와 다른 설화 작품 또는 기록문학 작품과의 관련성 파악			· 과제학습장		
정리	▷ 보충·심화 학습 ⑤ 1) 전개3)과 관련하여 ‘삼공본풀이’에 반영된 교훈적 요소 파악(보충) 2) 타 작품과의 연관성과 관련한 ‘삼공본풀이’의 의의 파악(심화) 3) 설화의 일반적 갈등구조 파악(심화) ▶ 학습 내용 정리 및 형성 평가 실시 ⑥ ▶ 과제 제시 ⑦			· 과제학습장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			과제 학습
			개별학습	소집단학습	협동학습	
① ②	②	④ ⑥	③ ⑤ ⑥	④ ⑤ ⑥	④ ⑤ ⑥	③ ⑦

<표 9> 수준별 학습지도안- 세안(예시)

내용		과정	보충	심화
학습 목표	기본 학습		1) 제주설화를 접하고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파악한다. 2) 작품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그 속에 반영된 의미를 이해한다 3) 작품의 주제와 작품에 반영된 문화적 요소를 파악한다. 4) 본풀이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 작품에서 신의 기능을 파악한다. 5) 이 작품과 타 설화 또는 기록문학 작품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수준별 학습		6)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을 파악한다.	6) 타 작품과의 연관성에 관련하여 설화의 의의를 이해한다. 7) 설화의 일반적 갈등구조를 파악한다.

내용		과정	
		보충	심화
교수·학습 활동	도입	1) 설화란 무엇인가? (과제학습장 내용 질문) 2) 신화·전설·민담의 차이점은? (과제학습장 내용 질문) 3)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주설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 학습목표 제시	
	전개 (기본 학습)	※ 학습 집단별 토의 학습 - 과제학습장의 내용을 각자 해결하도록 한 후, 지정된 문제에 대해 집단별로 토의하여 한 학생이 발표하고, 다른 집단 학생과의 질의 응답을 거쳐 교사가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1) '삼공본풀이'의 내용 파악 · 준비학습 자료인 '삼공본풀이'의 현대어역(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무가』)을 유인하여 나누어주고 본시 수업 전에 읽도록 한다. · 학습 집단 I에서 줄거리를 요약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건을 9개 단락으로 정도로 나누어 정리, 발표한다. 2) 설화 작품의 갈등구조 파악 및 그 속에 반영된 의미 이해 · 학습 집단 II에서 토의하여 사건을 발단, 전개, 결말로 구성을 정리하고 각 구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내용, 그 갈등에 반영된 전승자의 의식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교수·학습 활동	전개 (기본 학습)	3) '삼공본풀이'의 주제 및 반영된 문화 요소 파악 · 학습 집단 III에서 작품의 주제를 다양하게 파악해 발표한다. · 학습 집단 III에서 작품에 반영된 문화 요소를 파악해 발표한다. 4) '본풀이'의 성격 이해 및 '삼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의 기능 파악 · 학습 집단 IV에서 '본풀이'의 개념과 성격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 학습 집단 IV에서 '삼공'이라는 신의 기능을 파악하여 발표한다. 5) '삼공본풀이'와 다른 설화 작품 또는 기록문학 작품과의 연관성 파악 · 학습 집단 V에서 온달설화, 서동요, 심청전 등과의 연관성과 그 의미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전개 (심화·보충 학습)	수준별 과제학습장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보충·심화집단별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1) 타 작품과의 연관성과 관련한 '삼공본풀이'의 의의 파악 - 전개 5)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삼공본풀이'의 의의를 정리 발표한다. 2) 설화의 일반적 갈등구조 파악 - 전개 2)에서 파악한 갈등구조를 바탕으로 설화의 일반적 갈등구조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정리	1) 본시 내용 정리 2) 형성 평가 및 차시 예고	

1. 설화의 개념과 특징 : () 안에 적당한 단어나 구절을 넣어 보자.

(1) 설화는 일반 민중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이다. 이것은 ()·()·민담의 세 가지로 분류하지만 뚜렷이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서로 넘나들기도 하고 상호 전환되기도 한다. 그 내용은 민족적이고 민중적이어서 그 시대의 교훈·도덕·사회제도 등 민족의 생활 감정과 풍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상적이고 공상적인 특징을 가진다. 또한 형식은 서사적이어서 ()의 모태가 되기도 하며 문자로 정착되어 기록문학적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설화는 기록된 것도 있으나 주로 화자(話者)와 청자(聽者) 사이에서 ()되는 이야기로서 단순하고 간단한 표현 형식을 가지며, 서사민요·서사무가·판소리 등이 대개 율문(律文)으로 구연(口演)되는 데 비하여 설화는 ()으로 구연된다는 특징이 있다.

(2) 신화·전설·민담의 구분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신성하다’고 믿음. 신성미	‘진실하다’고 믿음. 진실미	‘흥미롭다’고 믿음. 흥미 위주
시간과 장소	까마득한 옛날 (태초) 신성한 장소	구체적이고 한정된 시간과 장소 (조선조 연산군 때 전라도 남원 땅에 ...)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음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어느 산골에...)
증거물	포괄적 (우주, 국가 등)	개별적, 구체적, 특별한 것. (바위, 동굴, 연못, 나무 등)	보편적 대상과 현상(수수대가 빨간 이유...)
주인공과 그 행위	(), 초능력 발휘	비범한 인간, 비극적 결말	(), 운명 개척
전승범위	민족적 범위	() 범위	세계적 범위

2. ‘삼공본풀이’ 내용 파악

(1) 이 작품에서 중요한 사건 정리한 것이다. () 안에 적당한 단어나 구절을 넣어보자.

- ① 옛날에 두 남녀 ()가 길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다.
- ② 셋째 딸 ()를 낳고 부자가 되었다.
- ③ 아버지와 딸들이 문답을 주고 받을 때, 셋째 딸은 ()고 대답하여 쫓겨난다.
- ④ 셋째 딸은 시기하는 언니들을 지내와 버섯으로 변신시키고 검은 암소에 ()과 ()을 신고 집을 떠난다.
- ⑤ 부모는 셋째 딸을 내쫓고 () ()가 된다.

- ⑥ 셋째 딸은 별관 오두막집에서 노부부와 () 삼형제를 만나서 형제 중 가장 착한 셋째 ()와 결혼한다.
- ⑦ () 파던 구덩이에서 ()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 ⑧ 셋째 딸은 부모가 () ()가 됐으리라 예견하고 ()를 벌인다.
- ⑨ 셋째 딸은 ()에 온 부모와 만나고 부모는 눈을 뜬다.

(2) 위의 사건을 발단, 전개, 결말로 나누고 각 단락의 갈등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 () 안에 적당한 단어나 구절을 넣어보자.

1) 발단

- ▷ 사건 ① ~ () : 부녀의 () 문답, 셋째 딸 축출
- ▷ 갈등 - 부친 : () → ()의 승리

2) 전개

- ▷ 사건 () ~ () : 시기하는 언니 (), ()와 결혼, () 발견, 부자가 됨
- ▷ 갈등 - 언니 : () → ()의 승리, 셋째 딸 : () → ()의 승리,

3) 결말

- ▷ 사건 () ~ ⑨ : 부모와 상봉, 부모가 눈을 뜬
- ▷ 갈등 - 부친 : () → ()의 승리

(3) 앞에서 살펴 본 갈등구조에 반영된 의미를 파악해 정리한 것이다. 다음 () 안에 적당한 단어나 구절을 넣어보자.

1) ()에서 부친이 권위를 내세워 딸을 내쫓음으로써 부친이 승리하고 딸이 패배하는 상황이 결말부에 와서는 상황이 ()되어 딸이 승리하고 부친이 패배한다. 여기서 부친이 패배하는 것은 도덕률에 어긋나고, 부모와 자식간의 승패는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갈등과 해소는 자식이 부자가 되어 부친을 만나게 함으로써, 딸의 주장대로 ()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부친에 대해 ()했다는 행복담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2) 전개부에서 시기하는 언니와의 대립에서 승리하는 것은 비정상이나 ()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징벌하고 ()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의식의 반영이다. 이는 고대소설에 거의 공통적으로 반영된 교훈적 요소로, ()의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3) 전개부에서 가난하고 착하지만 ()이 소중한 것을 전혀 모르는 ()를 셋째 딸이 가르쳐 주어 부자가 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사회에서 ()의 경제

적 지위가 우월한 상태였음을 느끼게 한다.

3. ‘삼공본풀이’의 갈등구조를 바탕으로 설화의 일반적 갈등구조를 유추해 정리해 보자.(심화)

4. ‘삼공본풀이’의 주제와 이 작품에 반영된 문화 요소를 정리해 보자.

▷ 주제 ①

②

③

▷ 문화 요소

5. ‘삼공본풀이’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적 요소를 정리해 보자.(기본)

6. ‘본풀이’의 개념과 성격을 정리하여 () 안에 적당한 단어나 구절을 넣어보자.

‘본풀이’는 ‘본(本)’과 ‘풀이’의 복합명사이다. ‘본’은 ‘근본, 본래, 본초(本初), 본원(本源)’ 등의 뜻으로 신의 ()을 의미하고, ‘풀이’는 ‘풀다 [解]’의 전성명사로서 ‘해설, 해석, 설명’이라는 뜻이다. 본풀이는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게 되기까지의 유래와 내력을 해설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무당이 굿을 할 때 대부분 제상(祭床) 앞에 앉아서 장구를 치며 노래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본풀이는 무당이 그들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의에서 노래한다는 면에서 서사무가요, 그 내용이 신의 내력·행적을 설명하는 신성한 설화라는 면에서는 ()가 된다.

7. ‘삼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의 직능을 파악하여 () 안에 적당한 단어나 구절을 넣어보자.

삼공신은 사람의 가난과 복을 주관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며 착한 사람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상의 ()을 불러일으키게 하기도 없애 주기도 한다. 즉 상대방의 () 여하에 따라 그들이 삶의 양상을 결정함으로써, 그들의 ()을 관장하는 신이라 할 수 있다.

8. ‘삼공본풀이’와 다른 설화 작품 또는 기록문학 작품과의 연관성을 정리해 보자.

▷ 온달설화

▷ 서동설화

▷ 심청전

9. ‘삼공본풀이’가 다른 설화 작품이나 또는 기록문학 작품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 설화의 의의를 정리해 보자.(심화)

<정답 및 설명>

1. 신화, 전설, 소설, 구전, 산문, 신, 평범한 인간, 지역적
2. 거지, 가문장아기, 내 복에 산다, 옷, 쌀, 눈먼(맹인), 거지, 마통이, 마, 금, 눈먼(맹인), 거지, 맹인 잔치, 맹인 잔치, ③, 복, 셋째 딸(가문장아기), 셋째 딸(가문장아기), ④, ⑦, 응징, 셋째 마통이, 금, 셋째 딸(가문장아기), 셋째 딸(가문장아기), 마통이, 셋째 딸(가문장아기), ⑧, 셋째 딸(가문장아기), 발단부, 역전, 인간은 제 복에 산다, 효도, 나쁜, 좋은(선량한), 권선징악, 금, 마통이, 여자
3. 상반되는 두 원리의 대립 갈등으로 이루어진다. 예) 선과 악, 미와 추, 정직과 부정직, 서민과 양반, 가난과 부, 인간과 괴물 등
4. ① 인간은 제 복에 산다. ② 효도 ③ 권선징악. 부계중심사회, 핵가족제, 효사상, 사유재산제도, 농경사회 등
5. 부녀간의 윤리와 효도 등 유교적 문제, 악한 자를 응징하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는 권선징악, 자기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삶의 자세 등
6. 내력(유래), 신화
7. 징벌, 질병, 마음, 운명
8. 능력 있는 여성이 집에서 쫓겨나 가난하고 무식한 남자와 결혼하여 그를 출세시키는 내용은 온달설화와 유사하다. 마통이가 파는 마 구덩이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는 내용은 서동설화와 유사하다. 눈이 멀고 거지가 된 부모를 만나기 위해 맹인 잔치를 하고, 딸을 만난 부모가 눈을 뜬다는 내용은 심청전과 유사하다.

9. 이런 설화들을 분류하여 ‘내 북에 산다게 설화’라 하며, 이야기에 신성성이 부여된 것이 ‘삼공본풀이’, 사실적 신빙성이 부여된 것이 서동설화, 신성성이나 사실성이 상실된 것이 온달설화이다. 이 유형의 설화에 불교적 요소가 가미되어 기록문학화 한 것이 심청전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삼공본풀이’를 고찰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원류를 탐색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한국 고문화의 한 양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문화를 형성, 배태한 기저를 밝혀 볼 수 있다.

제2절 제주설화 교육의 방법

이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부합되도록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구안하여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먼저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집단 편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집단 편성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별 집단을 구성하게 하고, 기본학습을 공통적으로 한 뒤에, 자기 점검을 통하여 만족한 학생은 심화학습을, 불만족스러운 학생은 보충학습을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기본학습은 사전에 편성된 4~6개 정도의 조별로 자리를 배치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기본학습이 끝나면 심화·보충 집단별로 자리를 이동, 배치하는데, 집단별 자리 배치는 교실 여건상 교실의 앞과 뒤, 혹은 교탁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 배치한다. 자리 배치 시에는 집단별 발표나 교사의 설명을 들어야 하므로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중앙 정면을 등지고 앉지 않도록 조정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제주설화를 활용한 학습은 교과 수업 시간을 이용하거나 특별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먼저 교과 수업 시간을 이용한 지도는 국어교과서나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단원을 지도할 때, 이 단원과 관련이 깊거나 유사한 지도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제주설화를 선정하여 지도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로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에 월 1~2 시간을 제주설화 지도 시간으로 할당하고 전체 학습목표에 합당하도록 연간 계획을 세워 지도하는 방법도 있다.

제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설화와 관련 깊은 제주설화를 선정한 예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문학교과서 수록 설화와 관련된 제주설화(예시)

작품명	출판사	수록 범위	수록단원명	지도 중점	관련 제주설화와 지도 요소
단군신화	두산	전체	I. 한국 문학의 모색과 정립	건국이념, 신화의 신성성, 신화의 일반적 성격	▷ 삼성신화 · 신성성, 상징성 · 제주인이라는 동질성 · 천손강림형 화소와 지중용출형 화소의 대비
	금성	말미 생략	III. 민족 문학의 흐름	스스로 국가를 건설한 주체적 민족이라는 자부심, 신화가 가지는 민족 문학적 의의	
	디딤	전체	(2)- I. 상고시대의 문학	신화의 서사적 특성, 신성성, 상징성, 후대 전승상 특성	
	블랙	전체	II. 고대 문학의 흐름	건국이념, 건국신화 의의 파악과 신앙 체제 및 농경사회의 변화 과정	
	중앙	전체	I. 고대의 문화와 문학	신화를 통해 천신이 선택한 땅에 세워진 나라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과 기상	
	한교	전체	V-1. 문화와 문학의 태동	건국이념, 신성성, 건국신화의 특징, 상징적 의미, 문화사적 의의	
	한미	전체	V-1. 문화와 문학의 태동	고대 서사문학의 특성, 신화의 특성, 반영된 민족 의식, 상징적 의미, 작품의 구조	
주몽신화	교학	앞부분 생략	II.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건국신화로서의 특성, 신화의 상징적 의미	
혁거세왕	천재	앞부분 생략	IV. 한국문학의 특질과 흐름	국조신을 바라보는 옛사람들의 사고, 건국신화의 특징, 신이성	
삼태성	두산	전체	I. 한국 문학의 모색과 정립	향유 집단의 진취적 기상, 효도의 의미	▷ 천지왕본풀이 · 자연의 질서 형성에 대한 고대인의 의식
연오랑 세오녀	문원	전체	II. 한국 문학의 흐름	설화의 특징, 고대인의 생활과 그 의식	▷ 설문대할망 설화, 비양도 설화 · 고대인의 사고관 : 육지가 바다에 떠서 이동한다는 사고
조신의 꿈	중앙	전체	II. 중세전기의 문화와 문학	중세전기를 살았던 선조들의 세계와 전설의 특징 파악	▷ 환생 설화 · 환몽구조와 환생 설화의 구조 · 육망과 집착의 어리석음
	디딤	전체	(2)-2. 고려시대의 문학	전기성(傳奇性), 환몽구조, 육망과 집착의 어리석음	

작품명	출판사	수록 범위	수록단원명	지도 중점	관련 제주설화와 지도 요소
온달전	민중	전체	Ⅱ.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인물간의 관계, 전기(傳記) 형식, 생활상	▷ 삼공본풀이 · 갈등 구조 ·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관계
호원	민중	전체	Ⅱ.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적극적 애정관, 행동에 반영된 심리, 인물의 행동 평가	▷ 여우 변신 설화 ▷ 천지왕본풀이 · 인간중심 사고 ▷ 오찰방설화 · 난제 해결 모티브
지귀설화	민중	전체	Ⅱ.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적극적 애정관, 심리 변화과정, 전기성(傳奇性), 시대상	▷ 도깨비 설화, 영감본풀이 · 신이성, 전기성
이야기 주머니	디딤	전체	I-1. 문학 문화의 특성	설화의 속성, 소통 과정의 특성	▷ 많은 작품이 가능함
바리공주	디딤	전체	(1)-3.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고난 극복의 교훈, 한국 문학의 특질	▷ 초공본풀이 · 무조신화 · 고난극복의 교훈성
달팽이 각시	블랙	전체	Ⅲ-3. 서사 갈래의 이해	소설과 설화의 차이, 구비문학의 전승상 특징, 화소 분석	▷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 기록문학과 관계 · 화소 분석

특활시간을 이용한 지도는, 설화만 또는 향토문화만 등의 특활반을 편성하고 특활시간에 차후 논의할 제주설화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지도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가능한 체험 위주의 교육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은 ‘제주설화 문학 답사’ 항목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1. 읽은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기

앞에서 언급한 수준별 학습을 하기에 적합한 하나의 교육방법이다. 제주설화를 읽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습자 서로 간에 토론을 하도록 한다.

교사가 준비하거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준비해 온 제주설화를 읽고, 자율적으로 선택한 각 집단활동을 한다. 교사는 토론의 주제를 잡아주고, 토론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특히 심화·보충학습시는 집단의 특성에 맞게 보충집단은 제주설화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심화집단은 다음의 지도 순서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도한다. 이 때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반드시 기록하며 활동하도록 한다.

- ① 제주설화의 주제를 다층적으로 파악해 본다.
- ② 학습자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대안 제시를 해본다
- ③ 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의 구조와 비교해 본다
- ④ 이 설화의 내용과 관계 있는 소설과 시를 떠올리고 표현과 구조의 변화, 수용, 양상에 대해 생각해 본다
- ⑤ 제주설화를 통한 생활 속의 지혜와 교훈성, 도덕성을 이야기한다
- ⑥ 제주설화에 나타난 문학적 미의식을 파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설화의 내용과 느낌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이 때 교사가 토론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주설화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읽은 내용 토론하기 지도안 예시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읽은 내용 토론하기 지도안(예시)

학습제재	설문대할망 설화	차시	1/1
학습 목표	1) 제주설화를 접하고 ‘설문대할망’ 설화의 내용을 파악한다. 2) 설화의 하위 분류를 알고 이에 따라 이 설화를 분류한다. 3) 이 설화에 반영된 향유자(제주도민)의 의식을 파악한다. 4)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5) 토론의 특징과 의의를 이해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습 흐름	교수·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동기 부여 문제 선정 계획 수립 문제 해결	▷ 단원 개관(단원의 내용 소개) ① ▷ 학습 동기 유발 및 본시 학습 목표 확인 ② ▷ 학습 문제 선정 : ‘설문대할망’ 설화의 분류 및 이에 반영된 도민의식 파악 ▷ 문제 해결 방법 수립 · 학습 형태 : 개별 및 모둠 학습(8명 이내의 4개 모둠을 편성하여 진행) · 학습 방법 : 설명, 질의 응답, 토의 및 토론 ▷ 준비 학습 : 설화의 개념과 특징, 신화·전설·민담의 차이점, 토론의 방법③ ▷ 학습 전개 1) 준비학습 자료에 제공된 설화의 특징 및 신화·전설·민담의 차이점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한다.④		· 준비학습 자료

학습 흐름	교수·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2) 『제주설화집성(1)』 및 『제주도 전설』(현용준 지음)에 수록된 ‘설문대 할망’ 설화’를 정리하여 만든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읽도록 한다. ⑤ 3)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인가 전설인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전체적으로 토론한다.⑥			· 유인물		
정리	- 신화적 요소 : 초능력을 발휘하는 창조신의 성격, 광범위한 증거물 등 - 전설적 요소 : 지역적 전승, 비극적 결말 등 4) 토론에 대해 강평하고, 신화·전설·민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해시킨다. - ‘삼공본풀이’, ‘온달설화’, ‘서동설화’ 등을 예시로 함.⑦ 5) ‘설문대할망’ 설화에 반영된 제주인의 의식 파악 : 모둠별 토의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한다.⑧ · 육지와 격리된 한계성을 극복하고 싶은 욕구 반영 · 자연물이나 지리적 특성의 원인 규명 · 여성에 대한 제주인의 의식 : 진취적이며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 여인상, 여자들의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던 제주의 상황 등 6) 질의, 응답 후 내용을 정리해 주고, 제주설화 학습의 의의를 설명한다. - 제주인의 삶의 지혜 계승·발전, 제주의 향토사 이해에 도움 등.⑨ ▷ 학습 내용 정리 및 형성 평가 실시 ⑩ ▷ 과제 제시 ⑪			· 유인물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			과제 학습
			개별학습	소집단학습	협동학습	
① ② ⑦	⑦ ⑨	② ④ ⑩	③ ⑤ ⑥	⑥ ⑧	⑥ ⑧	③ ⑪

2. 구연을 통한 지도

기본적으로 설화는 구비문학으로서 말을 통해 전달되고 말로 수용하며 말로 전승된다. 이런 과정에서 설화 구연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이야기의 뼈대에 자신의 상상력을 보태어 새롭게 꾸며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화는 지금도 끊임없이 구전되고 있는 유동적인 문학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제6차 교육과정에서 다룬 설화는, 문헌 설화를 번역한 설화이거나 윤색된 설화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진부한 내용들이거나 설화가 구비문학이며 구연되는 문학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에는

이런 점을 개선하여 제보자가 직접 구술하고 수집자가 채록한 ‘용소(龍沼)와 며느리바위’라는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접하기 어려운 제주설화를 이용하여 이를 구전문학답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설화를 직접 구연하게 지도하는 방법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구연을 통한 설화 지도 방법은 먼저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끌기에 적합한 교육적인 내용의 제주설화를 감상하게 한다. 그런 다음 그 설화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창작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구연자가 그 설화의 내용에 맞게 음성적 변화, 표정, 몸짓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구연 발표하게 한다.

이 방법은 시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몇 개의 학습 모둠으로 나누어 집단 구성원끼리 앞에서 감상한 제주설화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시간을 준 후, 집단 대표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에 따라 구연하거나, 집단별로 배역을 정하여 연극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때 각 집단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화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배한 후 활동하도록 하거나, 다른 설화를 각각 제공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화 본래의 구비문학적 특성과 구연성을 살려 제주설화 교육에 적용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매우 흥미 있고 감동적이며, 그 내용과 주제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제주설화의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구연을 통한 지도 지도안 예시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구연을 통한 지도 지도안(예시)

학습제재	고종달 설화	차시	1/1
학습 목표	1) 제주설화를 접하고 ‘고종달 설화’의 내용을 파악한다. 2) 설화의 구비문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승되는 이유를 안다. 3) 이 설화에 반영된 향유자(제주도민)의 의식을 파악한다. 4)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5) 설화를 재구성하여 구연한다.		
학습 흐름	교수·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동기 부여 문제 선정	▷ 단원 개관(단원의 내용 소개) ① ▷ 학습 동기 유발 및 본시 학습 목표 확인 ② ▷ 학습 문제 선정 : 설화의 구비문학적 특성, ‘고종달 설화’에 반영된 도민의식 파악, 설화 구연		· 준비학습 자료

학습 흐름	교수·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계획 수립	▷ 문제 해결 방법 수립 · 학습 형태 : 개별 및 모둠 학습(8명 이내의 4개 모둠을 편성하여 진행) · 학습 방법 : 설명, 질의 응답, 토의, 구연 ▷ 준비 학습 : 설화의 개념과 특징, 구연의 방법③			· 유인물		
문제 해결	▷ 학습 전개 1) 준비학습 자료에 제공된 설화의 구비문학적 특징에 대해 질의, 응답한다.④ 2) 『제주설화집성(1)』 및 『제주도 전설』(현용준 지음)에 수록된 ‘고종달 설화’를 원문 그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읽도록 한다.⑤ 3) ‘고종달 설화’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승되는 이유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질의 응답한다.⑥ - 구전(口傳)상 변이, 지역적 특성 반영, 구연자 개인차 등 4) ‘고종달 설화’에 반영된 제주인의 의식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질의 응답한다.⑦ - 풍수지리적 사고관, 큰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염원 등 5) 질의, 응답 후 내용을 정리해 주고, 제주설화 학습의 의의를 설명한다. - 제주인의 삶의 지혜 계승·발전, 제주의 향토사 이해에 도움 등.⑧ 6) ‘고종달 설화’ 구연 : 모둠별 토의를 통해 이 설화의 내용을 제주 방언으로 정리하고, 모둠별로 대표 학생이 발표하거나 또는 배역을 정해 연극을 진행한다.⑨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형성 평가 실시 ⑩ ▷ 과제 제시 ⑪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			과제 학습
			개별학습	소집단학습	협동학습	
① ② ⑧	② ⑧	② ④ ⑩	③ ⑤	⑥ ⑦ ⑨	⑥ ⑦ ⑨	③ ⑪

3. 미완성 이야기 완성시키기

수업 시간에 다룬 제주설화 중에서 지면·시간 관계로 또는 교육적인 의도로 앞·뒷부분이 생략된 설화나, 여운을 남긴 채 끝난 설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펼쳐질 사건이나 줄거리를 학습자가 상상하여 완성시키게 하는 교육방법이다.

교사는 적합한 제주설화를 제공해 주거나, 각 모둠별로 제주설화를 준비하도록 한 후, 준비된 설화를 자신이 속한 집단 친구들에게 앞·뒷부분을 생략시켜 들려주어 그 부분을 완성시키도록 지도한다. 이 때 학생들이 수준에 맞추어 미완성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것 뿐 아니라 그 제주설화가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등도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교육방법은 작품 원전 내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쓰게 하면 의외로 재미있는 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창작 의욕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준다.

미완성 이야기 완성시키기 지도안 예시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미완성 이야기 완성시키기 지도안(예시)

학습제재	막산이 설화		차시	1/1		
학습 목표	1) 제주설화를 접하고 ‘막산이 설화’의 내용을 파악한다. 2) 서사문학이 가진 허구성과 진실성의 의미를 이해한다. 3)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4)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5) 이 설화에 반영된 향유자(제주도민) 의식을 파악한다.					
학습 흐름	교수·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동기 부여 문제 선정 계획 수립	▷ 단원 개관(단원의 내용 소개) ① ▷ 학습 동기 유발 및 본시 학습 목표 확인 ② ▷ 학습 문제 선정 : 서사문학의 허구성과 진실성, 미완성 이야기 완성시키기, ‘막산이 설화’에 반영된 도민의식 파악 ▷ 문제 해결 방법 수립			· 준비학습 자료 · 유인물		
문제 해결	· 학습 형태 : 개별 및 모둠 학습(8명 이내의 4개 모둠을 편성하여 진행) · 학습 방법 : 설명, 질의 응답, 토의 및 발표 ▷ 준비 학습 : 서사문학의 특성과 허구성 및 진실성③ ▷ 학습 전개 1) 준비학습 자료에 제공된 서사문학의 특성(허구성, 진실성)에 대해 질의, 응답한다.④ 2) 『제주도 전설』(현용준 지음)에 수록된 ‘막산이 설화’의 결말부만 제외한 유인물을 만들어 나누어주고 읽도록 한다.⑤ 3) 생략된 결말 부분에 대해 각자가 완성한 후, 몇 학생이 발표하도록 한다.⑥ 4) 발표한 것에 대해 강평하고, ‘막산이 설화’의 결말부를 읽어준다.⑦ 5) ‘막산이 설화’에 반영된 제주인의 의식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질의 응답한다.⑧ -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 제주인의 소외와 억압(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막산이의 삶), 큰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염원 등 6) 질의, 응답 후 내용을 정리해 주고, 제주설화 학습의 의의를 설명한다. - 제주인의 삶의 지혜 계승·발전, 제주의 향토사 이해에 도움 등.⑨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형성 평가 실시 ⑩ ▷ 과제 제시 ⑪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		과제 학습	
			개별학습	소집단학습		협동학습
① ② ⑨	② ⑦ ⑨	② ④ ⑩	③ ⑤ ⑥	⑧	⑧	③ ⑪

4. 제주설화 문학 답사

이 교육방법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위주의 활동 방법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가까운 교외로 나가 웃어른들께 직접 제주설화를 들어보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설화의 근원지를 찾아 직접 그곳 어른에게 설화를 들음으로서 더욱 흥미 있고 효과적으로 작품을 내면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답사 일정과 계획을 수립한 후, 휴일을 이용하여 집단별 대표 학생들과 사전답사를 다녀온 다음, 소집단별로 답사하도록 한다.

설화를 채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설화 구연자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문화와 구연 대상이 되는 문화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그들이 정서적으로 서서히 설화 시대를 돌이킬 수 있도록 준비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

또한 설화 구연자는 문화의 전승자이자 창조자라는 중요성을 인식하며, 구연물 하나 하나가 바로 문학 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용뿐 아니라 구연 방법, 구연 상황 등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한다. 그리고 답사자들은 구연자와의 정서적·감정적 거리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것은 답사자의 도덕성과 결부되는 문제로서 전승집단과 전승·창조자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라포를 형성해야 한다. 곧 답사자는 그 문화를 존중하는 순수한 마음과 태도로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⁶²⁾

채록할 때에는 집단별로 녹음기를 준비하여 녹음하게 하고, 녹음된 여러 제주설화들을 집단별로 한 작품씩 분배하여 녹취록이나 보고서를 쓰게 한다. 이때는 먼저 구연자의 말과 행동, 구연 상황을 그대로 옮겨 적게 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일단 소리가 들리는 대로 기록한 후, 사투리나 분명치 않은 단어, 설명이 필요한 단어나 구절에는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돕게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설화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재구성하게 한다. 더 나아가 그와 관련이 있거나 비슷한 제주설화가 있는지 집단별로 조사해보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다른 제주설화를 첨가하여 보고서를 써서 개학 후에 제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교육활동은 수준별 집단으로 하지 말고, 각 집단에 보충·심화집단 학생이 골고루

62) 황루시, 『구비문학 현지조사론』,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pp.496~497.(연구자 재구성)

쉬일 수 있도록 별도의 소집단을 편성하여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 교육방법은 앞에서 논의한 설화 교육의 의의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설화는 글말이 아니라 입말로 이루어져 있어, 이의 수집 과정에서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말하기·듣기 교육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문학 활동에 있어서 말하기 듣기가 읽기와 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취급되어 온 것은, 글말로 된 기록문학은 입말로 된 구비문학에 비해 그 역사가 훨씬 짧지만 글말로 생활하는 소수 지배 계층에 의해 향유되면서 고급 문화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⁶³⁾이지만 실제로 말하기·듣기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입말을 통해서 전언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언어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한다⁶⁴⁾는 점에서 이 교육방법은 중요하다.

둘째, 구비문학은 입말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항상 상대방이 눈앞에 존재할 때라야 성립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향 소통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과 소비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비문학은 그 활동의 주제를 제한하지 않는 능동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자주적 자아의식은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이다.⁶⁵⁾ 또한 이런 소통 관계 속에서 어른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배우게 될 뿐 아니라, 바람직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산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셋째, 녹음된 설화를 전사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평소에 자주 접하기 어려운 제주의 사투리를 접하고 이를 공부하게 된다.

이상으로 제주설화의 교육에 대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감상문 쓰기, 논술문 쓰기, 연극하기, 설화의 모티프를 이용하여 시, 소설 창작하기 등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주설화 교육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주입식 교육과 단답형 문제 풀이에 길들여져 수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했던

63) 장석규, 「구비문학 교육의 효용론」, 『구비문학연구』 제8집, 1999, p.352.

64) 김수업, 『국어교육의 원리』, 도서출판 청하, 1989, p.36.

65) 장석규(1999), 전제논문, p.362.

학습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설화 수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사는 설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쌓고 자료를 준비하여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학습자들이 설화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할 때 자연스럽게 토론에 참가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진행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제출한 감상문, 편지글, 창작설화 등은 반드시 검토를 한 후 발표하게 하여, 학습자들 간의 생각을 서로 비교하게 함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교사와 학습자가 노력하여 위에서 제시한 제주설화 교육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제주설화 교육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설화는 선인들의 사상과 정서를 반영하며, 후대에 발생한 문학의 뿌리가 되는 민족 문학의 원류인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구연되는 현재의 문학이다. 특히, 설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세계관, 웃음과 재치, 생활 속의 지혜,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 등 교육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으며, 구비문학으로서 말하기, 듣기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문학 장르이다.

이러한 설화는 인간의 근원적 동질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 지역의 풍토성과 상황, 주민들의 심리에 따라 유사 설화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주는 본토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적지 않다. 제주의 풍토적,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제주설화는 현재도 생명력을 지니고 구전되고 있으며, 문학적 상상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내용 또한 풍부하다.

그러나 현대 교육에서는 이처럼 가치 있는 설화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주설화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바르고 효율적인 사고, 독창적인 사고 형성에 제주설화가 얼마만큼 역량 있는 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 나아가 효과적인 제주설화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설화의 성격과 기능, 제주설화의 성격과 교육적 의의, 그리고 고등학교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주설화에는 제주인의 생활상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설화 학습은 설화교육의 모든 의의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독특한 삶의 지혜를 계승·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며, 제주의 향토사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설화 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습자의 개별적 학습 능력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며, 특성화·개별화 교육에도 잘 부합된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제주설화를

학습자료로 이용하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통한 효과적 학습과 국어 교육의 목표 도달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3장에서는 제6,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설화 수용 양상과 함께 현 설화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고등학교 국어과목 교과서는 국어교육의 기본서로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국어 내용을 모두 표상(表象)해야 하는 교재라 할 수 있는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설화가 공통필수과목인 국어교과서에는 단 한편도 실리지 않았고, 단지 선택과목인 문학교과과에만 게재되어 있을 뿐이었으며, 18종 문학교과서에도 한 교과서에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문학 제재가 3회 이상 수록된 교과서는 5종에 불과했다. 또한 얼마 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 과목의 설화수용 양상을 살펴보더라도 국어교과서에 단 한편만 수록되어 있고, 문학교과서들에는 하나의 설화에 치중되는 것보다 각 교과서마다 비교적 다른 종류의 설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종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신화, 전설, 민담의 고른 배치가 제대로 고려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제재 선택에 있어서도 영역이 확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곧,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공히 설화문학은 교육적인 면에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제재만 다루고 있으며 그 영역 또한 문학교과서에만 치우쳐 있다.

제4장에서는 제주설화의 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제주설화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학습모형을 구안하였다.

대부분의 설화는 일정 부분 그 지역의 여러 환경과 역사를 반영하게 마련으로 제주설화 역시 이러한 바탕 위에 성립되었고, 이것은 제주인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제주인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이런 이야기 중, 신화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본풀이’이다. 이는 ‘본(本)’과 ‘풀이’의 복합명사로서 ‘본’은 ‘근본, 본래, 본초(本初), 본원(本源)’, 등의 뜻으로 신의 내력을 의미하고, ‘풀이’는 ‘풀다[解]’의 전성명사로서 ‘해설, 해석, 설명’이라는 뜻이다. 즉, 본풀이는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게 되기까지의 유래와 내력을 해설하는 이야기이다. 전설이나 민담에 해당하

는 제주설화에는 유독 인물설화가 많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이인, 장수, 거인, 건달, 여성, 계모, 처첩, 과부, 고부, 열녀, 효자 등의 11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설화는 양식적 특이성과 자연환경, 역사·사회적 상황의 특이성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이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서, 구조화된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수준별 교수·학습모형과 설화 지도 모형을 근거하여 새로운 제주설화의 수준별 교수·학습모형을 구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주설화를 국어과 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부합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년 간, 학교 간 지나친 중복을 조정하여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꾀하는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에 맞추어, 읽은 내용 토론하기, 구연, 미완성 이야기 완성하기, 제주설화 문학 답사, 감상문 쓰기, 논술문 쓰기, 연극하기, 설화의 모티프를 이용하여 시, 소설 창작하기 등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주설화 교육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앞에서 언급한 제주설화 교육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제주설화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고등학교 설화교육의 현황과 그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들이 고등학교 설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제주설화가 갖는 풍부한 교육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설화교육의 현황과 교육적 논의들이 고등학교 설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제주설화가 갖는 풍부한 교육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으로 ‘설화 교육론’의 이론적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전공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선 교사들도 설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설화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 논문은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 체계에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설화 수록 양상을 중심으로 한 설화의 교육 내용 선정·조직과 제주설화를 제재로 한 학습지도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교과서와 교사 및 학습자가 만나는 교육현장의 실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연구나, 설화 자료를 투입하여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가 없는 민족은 혼이 없는 민족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 선인들의 삶을 통해 오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내일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제주 전통문화를 배워 알고 이해하려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일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적 여건들이 착실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먼저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수립되고 교재도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고찰한 제주설화 교육 방법이 실제 제주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현장 교사들의 제주설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를 촉구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제주 :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전성기, 『남국의 무속(巫俗)서사시(敍事詩)』, 서울 : 정음사, 1980.
- 전성기, 『제주도 전설』, 도서출판 백록, 1992.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설화집성(1)』, 197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3.
-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한국고전문학전집 29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교육인적자원부, 『국어(상, 하)』, (주)두산, 2002.
- 구인환 외, 『문학(상, 하)』, (주)교학사, 2002.
- 김병국 외, 『문학(상, 하)』, 한국교육미디어, 2002.
- 김윤식 외, 『문학(상, 하)』,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2.
- 김창원 외, 『문학(상, 하)』, 민중서림, 2002.
- 김향구 외, 『문학(상, 하)』, 상문연구사, 2002.
- 박경신 외, 『문학(상, 하)』, (주)금성출판사, 2002.
- 우한용 외, 『문학(상, 하)』, (주)두산, 2002.
- 조남현 외, 『문학(상, 하)』,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 한계전 외, 『문학(상, 하)』, (주)블랙박스, 2002.
- 한철우 외, 『문학(상, 하)』, (주)문원각, 2002.
- 홍성신 외, 『문학(상, 하)』, (주)천재교육, 2002.
- 김주훈 외,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C 98-7,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단행본

- 고대경, 『神들의 고향』, 도서출판 증명, 1997.
-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I)』, 1992.
-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1995.
- 구인환, 『문학교육론』, 서울 : 삼지원, 2001.
- 김수업, 『국어교육의 원리』, 도서출판 청하, 1989.
- 김열규 외, 『민담학 개론』, 서울 : 일조각, 1982.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박영목 · 한철우 · 윤희원,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서울 : 교학사, 1995.
- 손동인, 『한국전래동화』, 정음문화사, 1984.
- 왕 빈, 『신화학 입문』, 금란출판사, 1980.
- 정동화 외, 『국어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1984.
- 정원식, 『정의의 교육』, 배영사, 1973.
- 최운식, 『설화교육서설』, 『한국어교육』 창간호, 서울 : 한국국어과교육개발연구회, 1980.
- 최운식 · 김기창, 『전래동화 교육론』, 집문당, 1988.
-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서울 : 흥성사, 1981.

3. 논문

- 권정인, 「설화교육연구-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광주, 「문학 영역의 수준별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 김기창, 「국어과 교육에서의 구비문학 제재수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대숙,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 김대행,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념」, 『교육과정 연구』 제14호, 1996.

- 김 미, 「설화교육론 - 고등학교 설화교육을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항원,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류달선, 「제주도 당신본풀이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류선옥, 「설화교육이 학습자의 사고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미경, 「고등학교 설화 교육의 내용·조직·방향 연구 - 문학 교과서의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소재영, 「제주지역 설화 문학의 비교연구」, 『승실어문』 제11집, 승실대학교 승실어문연구회, 1985.
- 양효진, 「혹부리 할아버지 설화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윤치부, 「21세기와 제주 전통문화 교육」, 『초등교육연구』 제6집,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1(5).
- 이대규, 「문학 교육론」, 『어문교육논집』 제6집,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이상구,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이성영, 「국어 교재의 편찬」, 『국어교육학 연구』 2집, 국어교육학회, 1992.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1.
- 장석규, 「구비문학 교육의 효용론」, 『구비문학연구』 제8집, 1999.
- 정인관,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수용 제재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허남춘, 「삼성신화 일고찰」,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 허남춘,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 허남춘, 「고전시가 교육의 방향과 과제」, 『백록어문』 17집, 백록어문학회, 2001.
- 허 춘, 「제주 설화의 일고찰」, 『국문학보』 13집, 1995.
- 허 춘, 「제주 설화의 특성 연구」, 『제주도연구』 제16집, 1999.
- 현길언, 「제주문화의 기저와 성격- 전환기 제주문화의 방향 모색」, 제주국제협의회 제10회 학술회의 발표 요지, 1999.

- 현길언·김영화, 「제주 설화를 통해 본 제주도 정신고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2호, 제주대학교, 1980.
- 현승환, 「내 북에 산다게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현승환, 「삼승할망 본풀이에 나타난 傳承意識」, 『心田金洪植教授華甲紀念論叢』, 제주문화, 1990.
- 현승환, 「薯童說話研究」, 『白鹿語文』 8집,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科, 1991.
- 현승환, 「飛揚島 說話의 樣相과 國土浮動觀」, 『耽羅文化』 11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傳承意識」, 『耽羅文化』 13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3.
- 현승환,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문화계통」, 『濟州文化研究』, 제주문화, 1993.
- 현승환, 「삼공본풀이 형성과정 연구」, 『濟州島言語民俗論叢』, 제주문화, 1992.
- 현승환,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 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 황길웅, 「고교 국어교재에 수록된 설화 연구 - 그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황루시, 「구비문학 현지조사론」,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4. 기타

http://hsed.or.kr/home_2002/ 전라남도화순교육청

<http://kotri.re.kr/> 한국교과서연구재단

<http://nongae.gsnu.ac.kr/>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5호,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Use of Jeju Folktales
- Focusing on the Literature of High Schools -**

Ko, heeju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hwan**

We have to seek the change of paradigms for the times to understand the life styles of the 21st century after the end of the 20th. Every life of the times relates to the past. So, it's time to accept the changing need of the modern times based on the inherited tradition. A tale is one of the most relevant educational materials to solve the issue.

In a unique natural, historical, and social environments, people of Jeju island have responded to the given circumstances and established a specific life style of its own. Those life styles have been projected on jeju folktales. Thus, the education of jeju folktales will allow us not only to understand the accumulated life styles of people in Jeju, but also to see the ways to live in the future.

This study is to find how useful jeju folktales can be as materials in establishing an ability to solve problem, human-based thinking, right and efficient thinking, and creative thinking that are necessary for us to live in the modern society.

I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 of jeju folktales will cover all the meaning of a folktale education, be helpful in inheriting and developing the wisdom of living in Jeju, and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regional history of Jeju, because jeju folktales have reflected the life styles and world views of the people in Jeju. Besides, it gives educational contents fit for individual learner's ability to study, for which the 7th Curriculum seeks, maximizes learning effects and meets specialization and customization training. So, it focuses on using jeju folktales that we can hear often as educational material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problem of the current folktale education by examining the folktales in the Korean texts of high schools under the 6th, 7th Curriculum, it is found problems that it does not include myths, legends, and folktales equally, that it has been limited to several materials, and that it is partially in the literature texts.

Third, it divides jeju folktales into several areas and designs a learning model in order to develop learning materials of jeju folktales.

Based on unique styles and natural environments, and specific historical and social conditions, jeju folktales shows that Jeju has been civilized in its own way. To lead effective classes using jeju folktales, it designs a new model of teaching and learning by level based on the existing model and a model of teaching folktales.

Fourth, it discusses learning guides relevant to the learner-oriented level curriculum that the 7th Curriculum calls for. The concrete examples include discussing what learners read, narrating, completing unfinished tales, literary visiting to jeju folktales, writing an impression, writing an statement, playing, studying by use of motif in folktale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Education in August, 2003. 8.